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9+12

SEP + DEC(합본호)

2024 vol.32

특집

동역회 40년 :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사람 사이 동역회 시니어 대담과 주니어 대담

청년 시론 흔들리지 않는 소망

문화로 세상 보기 20세기 최고의 세계관 대결

ISSN 2671-8731

Contents

SEPTEMBER + DECEMBER · 2024

시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신앙 운동이다 | 송봉호 02

편집장의 말

기독교 세계관 운동 40년을 감사하며 | 신국원 04

특집

동역회 40년 :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돌아보며 | 양승훈 06

초기 기독교학문연구회가 걸어온 길 | 양성만 08

기독교 학문 운동 회고와 조망 | 정수영 10

방바닥 모임에서 커피숍까지 | 박문식 12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미래 - 귀향의 길을 수축하며 | 이민경 14

정보 전달자에서 신앙 전달자로 | 박영주 16

‘그때도, 지금도 맞는 것’, 그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것’ | 박진규 18

다음 세대를 위한 CTC 사역의 의의와 미래 방향 | 유경상 20

예수, 우리의 왕, 그를 위하여! | 김혜정 22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 청소년과의 연합을 모색하다 | 장슬기 24

목회자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길 | 김정일 26

아름다운 ‘수고로움’에 대한 묵상 | 서나영 28

‘기독교 지성 운동’의 재생산이 가능하려면 | 김재완 30

사람 사이

시니어 대담 : 조성표, 최태연, 김태황, 박동열 32

주니어 대담 : 염동한, 오민용, 홍성욱, 임상희, 윤현준,
김태룡, 김셋벌 40

섬김의 자리에서

나의 세계관은 공사 중 | 김지원 48



2024. 9+12월호 | 제32호(통권 247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흔들리지 않는 소망 한기돈	50
주님 향한 사랑고백 이성경	52

청년 일터 이야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고성현	54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간다는 것 남아름	56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20세기 최고의 세계관 대결 강진구	58
-----------------------	----

미술을 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진단 : 예술 분야 서성록	60
--------------------------------	----

책을 보다

대한민국 1세대 시 박사가 전하는 일상에서의 신앙 석종준	62
등 뒤의 사랑, 나의 나무 ‘하나님’ 지상선	64



교회 路

일산교회 기독교 세계관 교육 소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윤상덕	66
소감문 : 뜻밖의 선물 장희정	67

온전한 지성

제1회 기독교 중고등학생 독서대회

세계관, 회복을 위한 첫걸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것들 김하준	68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서한웅	70
믿음의 여행 지침서를 읽다 장윤서	72

제7회 기독교대학원생 북 콘서트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 복음주의 기독교 종말론 논쟁 & 이해	74
--	----

40주년 축하 & 희망 메시지	76
------------------	----

동역회 40년, 주요 연혁	78
----------------	----

소식

사무국/관련기관 소식	80
재정보고/후원자보고	82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신앙 운동이다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대해서 목사 한 분이 “신앙 운동이면 충분하지, 왜 윤리 운동을 따로 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옳은 지적이다. 윤리는 온전한 신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 운동 외에 윤리 운동을 또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일반 사회뿐 아니라 교계 지도자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충분히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며, 이는 교인 수 급감, 청소년들의 교회 이탈, 기독교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윤리는 신앙에 첨부되면 더 좋을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윤리 운동은 곧 현대 한국 교회 신앙의 약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신앙 운동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기독교윤리 운동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윤리 운동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바로 그런 인식의 부족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어렵게 하고 생소하게 느끼게 한다. 윤리는 인간 공동체의 시작부터 필요했던 것이고, 십계명을 비롯해 율법과 여러 곳에서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이를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관의 존재와 중요성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수의 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비록 정확성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세상을 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통과 통신기술이 발달하여 다른 문화들과의 접촉이 활발해지자 사람들이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세계관에 따라 평가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따랐던 세계관이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과 다르다는 것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신자들은 물론 심지어 신학자들조차 대부분 이 사실과 그 심각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윤리 운동 못지않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윤리 운동과 마찬가지로 신앙 운동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약한 고리를 강화하는 신앙 운동의 일환이란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전략적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십자가의 구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시되었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창조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종교개혁자 칼뱅

이 강조한 것이고 카이퍼가 다시 일깨운 것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적 교리다. 창조, 구속, 성령의 역사 등 기독교 세계관의 모든 핵심 요소들의 기본 전제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과 성취에 압도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등 세상의 모든 것과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필립스(J. B. Phillips) 목사의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Your God is too Small)란 책 제목처럼, 하나님을 겨우 세상의 한쪽 구석으로 밀려난 교회와 소수의 신자들만 돌보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그런 인식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다. 거기다가 악의 세력은 너무 크고 자신과 세상의 죄는 너무 심각해서 선과 악, 교회와 세상, 하늘나라와 지옥, 주일과 평일, 기도와 노력 등을 대비시키는 이원론적 사고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와 교인이 감당해야 할 주된 임무는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해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옮겨오도록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에 관심 쓰는 것은 시간 낭비요 세속적이란 생각이 굳어진 것이다. 근본주의적 이원론은 바로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신앙은 창조보다는 십자가, 성부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런 신앙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설 자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그리고 속죄와 은혜에 초점을 두다 보면 신앙의 초점이 자신의 구원에 집중되고,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기껏해야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에 국한되어 버린다. 개인의 구원과 전능자의 강복은 모든 종교에 공통되므로 ‘기독교’도 그런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만다. 특히 무속적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은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

람의 복에 초점을 두므로 건전한 성경적 신앙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자기중심적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기도 힘이 든다. 세상의 빛은커녕 소금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잘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제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구원받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두 신학자가 성경의 몇몇 구절을 풀이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라 수백 년의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 전체를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의한 것을 정리하여 내린 신앙고백이다.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는 인간구원과 복 중심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타락과 죄의 심각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성령의 함께 하심은 이제까지 교회가 중요시해 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창조의 중요성을 같이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운동인 동시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 40년을 감사하며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이번 호는 처음으로 합본을 냅니다.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집으로 기획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에벤에셀의 감사와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기대와 모색과 소망을 담았습니다. <시선>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 40년의 역사는 기독교적 가치를 삶의 길로 삼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창조의 중요성에 대한 고백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인 점을 강조합니다.

<특집>에서는 초기 멤버들의 회고와 새로운 세대의 소망을 담아보았습니다. 양승훈 총장님은 1980년대 초 시작된 우리 운동이 보수화되지 않아야 할 것과 새로운 세대의 도전에 부합하는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초기 리더였던 양성만 교수님은 지난 시간 걸어온 길을 복기해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힌트를 줍니다. 장수영 교수님도 급변의 지난 40년 세월 속에 기독교 학문을 선도해온 우리 공동체가 신앙과 학문의 온전한 ‘통섭’의 더 큰 꿈을 꾸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박문식 교수님은 옛날 ‘방바닥 수련회’의 열정과 감성을 다시 살려내 새로운 세대로 이어질 소망을 피력합니다.

이민경 교수님은 현재 대학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오랫동안 가르치며 공동체적 삶이 현재와 미래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관건이 됨을 일깨워 줍니다. 박영주 교수님도 현장 그리스도인 교육자의 오랜 경험 속에 실천적 교육의 중요성을 갖출 것을 권합니다. 박진규 교수님은 맞다고 믿어온 것이 지금도 맞는가를 돌아볼 귀한 계기를 던져 줍니다. 지난날의 열정과 방법의

회복이 아닌 치열한 고민을 통해 나아갈 길로 4가지를 제안합니다. 다음 세대 세계관 교육에 헌신해 온 유경상 교수님이 6가지 답으로 이에 화답합니다.

김혜정 대표님은 CUP 사역을 이론이 아닌 삶으로 기독교 복음의 일상성과 공공성이라는 영역을 탐색하며 나아가리라는 다짐을 나눕니다. 장슬기 선생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세대 연결처럼 불신앙의 사조와 영상과 전자 매체의 영향 아래 매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독교 세계관 책들을 통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비전을 품기를 강조합니다. 다년간 강남교회와 삼일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통해 교육했던 김정일 목사님은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기독교 세계관적 목회를 실제로 돕는 과정과 함께 성도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개발을 요청하십니다. 서나영 교수님은 기독교적 학문의 길에서 씨름하는 젊은 학자들을 격려하고 도울 개인적이며 인격적 교제를 통한 세대 간의 교제를 더불어 요청합니다. 끝으로, 김재완 형제는 세분화하는 학문 세계 속에서, 이전과 같은 기독교 세계관적 조망으로부터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는 스터디 모임이나 ‘기독교학문연구회’ 같은 성격의 스터디그룹이 결성되기 어려웠던 이유가 변화된 대학 현실과 지식인들의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 특집 글 필자로 초기 리더였던 황영철, 김현수, 오창희, 김재영, 이승구 같은 분들의 글을 신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아울러, 조무성, 강영안, 윤완철, 박창균, 김승욱 같은 회장이나 실행위원장으로 섬겨 주신 분들도 필자로 모시지를 못해 송구합니다. 그 외

에도, 김의원, 김성수, 전광식 같은 분들도 필자로 모
시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람 사이〉는 시니어 대담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 운
동 지난 40년의 ‘걸어온 길’을 정리 평가하고, 주니어
대담을 통해 앞으로 40년 ‘나아갈 길’을 모색한 내용을
전합니다. 대담에 참여한 시니어는 오랜 시간 실행위
원장과 이사로 섬기며 각기 대학사회에서 기독교 세
계관 운동을 펼쳐 오신 분들입니다. 또 주니어는 현재
모두 동역회 회원 및 직·간접적으로 동역해 온 그리
스도인 소장 학자들입니다. 〈섬김의 자리〉에는 실행
위원장 김지원 교수님께서 지난 1년 일본에서 선교적
생활과 올해 40주년 행사 준비와 앞으로 우리 공동체
가 나아갈 길에 대한 소망도 나눕니다.

〈청년 시론〉에서 한기돈 형제는 완고한 무신론 학우
와의 나눔에서 강고한 논리 이면에 불안과 허무가 골
리앗의 보호되지 않는 세계관의 취약점이며 이를 깨
뜨려 복음을 나누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성경 자
매는 콘텐츠 디자인을 공부하게 된 과정에서 경험하
는 신앙적 경험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청년 일터〉에서 고성현 형제는 항공공학도가 항공
회사를 거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이 되는 과정
에서 겪은 신앙적 체험을 나눕니다. 남아름 자매는 수
의학 박사후연구원으로서 모태신앙에서 자신의 신앙
을 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멸종 위기종 보존 연구
에 관심을 갖게 된 과정을 소개합니다.

〈영화를 보다〉에서 강진구 교수님은 영화 〈프로이트
의 라스트 세션〉(Freud's Last Session, 2024) 속의 심
리학자 프로이트와 기독교 변증가 C. S. 루이스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20세기 세계관 대결’의 상징적
사례를 분석합니다. 〈미술을 보다〉에서 서성록 교수
님은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예술의 비전을 탐색해
온 역사를 아브라함 카이퍼부터 한국의 학자들에 이
르기까지 일별하면서, 오늘의 예술적 의제를 바로 파

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기독교적 이해와 성찰에 근거
한 변혁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책을 보다〉에서는 석종준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AI 1
세대 전문가 이호수 박사님의 신앙 수필집, 〈인상
에서 만난 신앙〉을 나눕니다. 지상선 소장님은 자신의
동시 그림책, 〈나의 나무에게〉를 직접 소개하는데, 저
자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글을 집필해 온 아동문
학가입니다.

〈교회로〉에서는 일산교회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소
개합니다. 윤상덕 담임 목사님은 은사 중심 교회의 부
교역자 시절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경위를 소개하
고, 장희정 권사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이 안
경’이고 ‘선물은 소망’임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소회를
나눕니다.

〈온전한 지성〉에서는 동역회 40주년을 기념하여 최
근 개최한 ‘제1회 기독 중고등학생 독서대회’에서 수
상한 세 명의 청소년 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난 여
름방학 ‘종말론’을 주제로 서울대에서 열린 ‘제7회 기
독대학원생 북콘서트’의 소식과 그 의미를 전합니다.
이번 호는 우리 공동체 역사에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
입니다. 이정표는 항상 앞을 향해 있습니다. 특집 글
필자 한 분 한 분의 ‘간증’에 담긴 소망이 마음을 뜨겁
게 합니다. 귀한 글을 기꺼이 써 주신 모든 필자님과
항상 좋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애써준 편집위원님
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곡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
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돌아보며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대 총장 / 전 동역회 이사)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계에는 수많은 신학과 사상, 운동들이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기독교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근대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이하 '세계관') 운동은 칼뱅(J. Calvin)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지만, 현대적 의미의 '세계관' 운동의 기초는 장로교 신학자 오르(J. Orr)와 신칼뱅주의 학자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등에 의해 놓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살던 19세기 후반 유럽은 계몽주의 사상이 사회 전 영역에 퍼지고 있었고, 이는 여러 방면에서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고 있었다. 이에 기독교는 종래와는 달리 총체적인 신앙의 변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물에 대한 총체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드러내고 변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것이 '세계관'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세계관' 운동은 이와는 다른 이유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초에 시작된 한국에서의 '세계관' 운동은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병폐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원론이라는 자각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우주적인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의 차이는 왜 생기는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등등이었다.

이런 이원론적 행습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세계관' 운동이었다.

이원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구속의 삶이 관련되어 있고 다른 영역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었다.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괴리로 고민하는 한국 교회에 '세계관' 운동은 이원론의 극복을 모토로 내어놓았고, 이로부터 '세계관'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세계관' 운동은 준비 단계까지 포함한다면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운동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세계관' 운동을 시작한 것은 1984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두 단체는 2009년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란 이름으로 통합하였다.

이제 한국에서 본격적인 '세계관' 운동이 시작된 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세계관'이란 이름으로 모이고, 학회지를 내고, 교회와 선교회 및 신학교와 대학 등에서 강연을 했다. 초기에는 주로 영어권 저자들의 책을 번역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저자들의 깊이 있는 저술들도 여럿 출간되었다. 1998년, 캐나다에 설립한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는 6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

였는데 이들 중 일부는 아예 '세계관'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관' 운동은 대학원 학생들이나 젊은 교수들의 학문 운동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운동의 외연이 크게 확장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운동은 모든 학문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이 가능하고 또한 가능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학문적 소명을 확장하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 나아가 신자들이 학교, 직장, 가정, 사회,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를 진지하게 반성하게 만들었고, 이는 양적으로 부흥하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세계관' 운동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운동과 단체들이 여럿 생겨났다. 아무래도 눈에 띄는 영향은 과학기술, 환경, 경영, 경제 등 학문과 직접 관련된 영역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적 '교수-학습'을 시도하는 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법조, 기업(직장 사역), 윤리, 예술 분야 등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적 적용을 하려는 노력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났다. 조용하지만 각 분야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적용과 삶을 실천하려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 40여 년의 '세계관'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40여 년의 세월은 운동의 노화 현상이 나타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세계관' 운동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다소 염려가 되는 측면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세계관' 운동의 보수화이다. 1980년대 초반, 처음 '세계관' 운동을 시작하던 세대는 당시로는 비교적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나이가 들고 상당수가 국내의 주요한 대학의 교수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점차 '세계관' 운동은 가진 자의 운동, 식자의 운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세계관' 운동은 흔히 말하는 성공

한 엘리트 운동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세계관' 운동의 보수화 배경에는 '세계관' 운동의 세대교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교계에서 '세계관' 운동을 시작한 주역들은 1980년대 초, 20대 중반에 있던 대학원 학생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60대 중·후반을 지나고 있다. 한국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베이비 부머로서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학생 시절의 대부분을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시대를 살았다. 지금 이 세대는 소위 민주화 세대, 촛불 세대인 50대 이하 세대들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다만 '세계관' 운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세계관동역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미주에서도 '세계관' 운동의 지도자들이 보수화되면서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어찌면 이제는 1세대 지도자들의 보수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 조심스럽지만 가능하면 빨리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는 '세계관' 운동을 펼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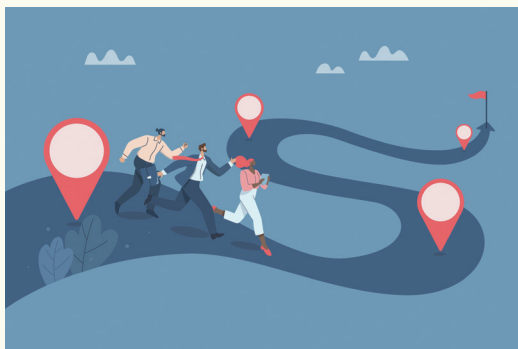
 글쓴이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북대 교수를 거쳐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재직했다.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캐나다에 주빌리교회를 개척하여 11년간 담임목회를 하였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를 역임했다.

초기 기독교학문연구회가 걸어온 길

양성만 (우석대학교 명예교수 / 동역회 이사)



사람들

“황영철이라고 합니다. 신국원 씨로부터 소개를 받아 전화하는데요, 그리스도인 대학원생들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983년 가을이었을 듯하다. 예상치 못한 이 전화가 35년간 이어온 나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처음 참여했던 과학모임에서 유건호를 만났다. 그 후에 이 모임을 통해 김헌수, 강영애, 송지환, 최예정, 오창희, 김승욱, 조무성, 정세열, 정확실 교수(이대), 김정환 교수(연세대), 김정욱 교수(서울대), 홍병룡 등 몇 분을 더 알게 되었다. 더 나중에 만난 분으로는 강영안, 최태연 등이 있었고, 최근까지 기독교세계관동역회의 실행위원장으로 수고한 박동렬은 당시 학부생이었다. 당시 서울대 교수로 계셨던 손봉호 교수님은 정신적 지주이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셨다. 주께서 여기저기에 주님의 나라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그 신비한 섭리로 만나게 해 주셨다. 이런 인적 자원이 기독교학문연구회의 기반이 되었다.

스터디그룹과 집담회

초창기 우리 모임은 꽤 소박했다. 대학원생, 대학생 수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독교 학자가 쓴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직이랄 것도 없이 다만 기독교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열망 하나로 움직였다. 필요에 따라 새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재배열되기도 했다. 모임 장소도 어느 교수님 댁, 교회 교육관, Acts 강의실 등 되는 대로 정해졌다.

그러던 중 각 모임의 참여자들은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첫 집담회를 열었는데 그때가 1985년 8월이었다. 그 모임에서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소식지 『새로운 지성』을 출간하기로 했다. 소식지는 당시의 스터디그룹들의 근황을 소개했는데, 철학모임, 역사모임, 문학모임, 수학모임, 교육학모임, 심리학모임, 사회정의모임, 정치학모임, 과학모임 등이 있었다. 집담회는 매년 2차례 열렸고 수십 명에서 근 100명 가까이 참여하기

도 했다. 중간에 스터디그룹의 인도자들이 함께 모여 수련회를 갖기도 하였다. 또 헨리(C. Henry) 등 외국의 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그분들과 만나 교제를 나누기도 했다. ‘기학연’은 이런 자발적인 공부모임에서 시작되었다.

고문 교수님들과

웬트워스(W. Wentworth) 선교사님

대학원생들이 주축을 이룬 ‘기학연’에는 여러 면에 취약점이 있었지만, 그 구멍을 당시 고문 교수님들이 메꾸어 주셨다. 손봉호 교수, 김정욱 교수, 김정한 교수, 정학실 교수는 수시로 우리를 만나 격려해 주셨다. 우리는 교수님 연구실에 모여 격려 말씀을 듣거나 함께 공부하기도 했고, 댁으로 초대를 받아 음식을 대접받기도 했다.

웬트워스 선교사님의 역할은 여기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분은 기독교 모임이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귀신같이 알아 거기서 만난 학자와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접근을 제시하고, 필요한 책들을 소개하며, 사람들을 연결해 주었다. 말하자면, 선교사님은 살아 움직이는 리소스 센터요, 개인이나 모임에 필요한 책자를 안내해 주는 기독교 서적 전문 사서이었고 스터디그룹들의 실질적인 프로모터였다.

세계관 세미나

기독교 신자는 학문연구도 기독교 신앙을 따라 해야 한다는 당위는 분명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갈피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내가 참여했던 철학 모임은 아서 홈스(Arthur Holmes), 월터스토프(Wolterstorff), 도예베르트(Dooyeweerd) 등의 서적들을 읽었는데, 나에게 그 해답의 단서를 제공해 준 책은 월터즈의 <창조 타락 구속>이었다. 다소 두서없이 여러 책을 읽었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프린스터, 카이

퍼, 도예베르트, 월터즈 등으로 이어지는 기독교 세계관을 접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의 결론은,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따라 삶을 살기 마련이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 연구한다면 그것이 기독교적 학문 연구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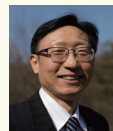
이런 이해에 따라 ‘기학연’은 세계관 세미나 과정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1986년 이후 ‘세계관 세미나Ⅰ’과 ‘세계관 세미나Ⅱ’ 또는 ‘현대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은 ‘기학연’의 시그널 프로그램이 되었다. 1991년에는 <성경적세계관자료집>을 편찬하기도 했다. 이 세계관 세미나가 그 시절 ‘기학연’의 정신을 형성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조직의 확장 and 통합

초창기 ‘기학연’의 임원은 두 사람의 간사가 전부였다. 얼마 후 외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분들이 국내 대학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이분들과 합쳐서 조직을 이루고 활동을 확장하기로 하였다(초대 회장 조무성 교수). 1995년에 통합 학술지 <신앙과 학문>을 창간했고,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몇 차례 명칭을 바꾸면서 소식지를 계속 발간했다. 2009년에는 기독교설립동역회와 통합하여 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결성하여 오늘에 이른다(초대 이사장 손봉호 교수). FAITH & LIFE



글쓴이 양성만



우석대 명예교수이다. 고려대 철학과 대학원 시절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했고, 고려대에서 서양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IVP, 공저)가 있고, 번역서로는 마이클 고힌(Michael Goheen)의 <창조, 타락, 구속>(IVP), 캘리 제임스 클락(Kelly James Clark)의 <기독교 철학자들의 고백>(살림) 등이 있다.

기독교 학문 운동 회고와 조망

장수영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동역회 이사)



1981년,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었다. 한국 경제는 온 세계가 놀랄 만한 규모와 속도로 발전하고 정치는 급속도로 민주화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격랑 속에 물질 만능의 풍조는 우리 사회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고, 모든 기릴 만한 전통적 가치는 급진적 이념들의 어지러운 도전에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 무렵 학문의 전당인 대학 캠퍼스에는 오직 운동권의 서사가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추구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했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구하고 있었다.

어차피 신앙과 학문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 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리 생각할 수 없었던 몇몇 그리스도인 대학원생들은 그들의 고민을 나눌 모임들을 시작한다. 이들은 각자의 믿음이 가진 색깔과 동기를 따라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과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이하 '동역회')라는 두 단체를 설립하여 그 모임을 이어가다, 2010년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기세동')라는 이름으로

연합한다.

이렇게 시작되어 오늘까지 이어온 이 땅의 기독교 학문 운동의 역사는 한 단계를 이루어 연합한 2010년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연합 이전 30년의 기간은 각자의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다양화'의 시기였다면 연합 이후 15년은 '통합'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라 부를 수 있겠다.

1981년에서 2010년까지 30여 년의 세월을 통해 두 단체는 구성원 각자의 색깔을 더욱 밝게 드러내는 '다양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기에 <신앙과 학문> 그리고 <통합연구>라는 학술지를 펴내고, 두 학술지 모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도록 한 것은 두 단체가 이룩한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또한 두 단체에서 활동하던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여러 기독교 학술 단체가 설립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인 경제·경영학자들의 모임, 그리스도인 교육학자들의 모임, 그리스도인 철학자들의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인 법학자들과 예술가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기학연'과 '동역회' 지체들은 이런

여러 학문 분야별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학술대회와 학술지를 펴내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기간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일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활동이 학문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기억할만한 학문적 성과들을 일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나누려 했던 부분이다.

‘동역회’는 1989년 기독교 출판사 CUP를 만들어 국내외 기독교 학문의 성과를 담은 출판물을 펴내어 널리 읽히게 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또한 ‘기학연’은 <새로운 지성>으로 시작하여 <온전한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펴내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목소리를 한국 교회 공동체에 널리 나누고자 하였으며, 지금은 독립된 기독교 월간지 <월드뷰>가 만들어지는 일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19년에 ‘기세동’의 기관지 <신앙과 삶>을 펴내는 일로 이어졌다.

2010년 두 단체의 연합 이후 지금까지의 기간은 ‘통섭’을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무렵 각 분야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세워졌으며, 이들은 우리가 처한 다양한 난제들에 기독교 학문의 입장을 펼쳐 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연례 학회의 주제만 보아도 이러한 변화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생태, 환경, 건강’, ‘뉴노멀’, ‘메타버스’, ‘양극화’, ‘공공선’ 그리고 ‘ChatGPT’에 이르기까지, ‘기세동’ 학술대회의 주제는 더 이상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의제들이 곧 기독교 학술 활동의 의제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널리 통섭하는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찌 보면 통섭은 학문의 궁극적 회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효율’을 위한 ‘전문화’라는 미명 아래 모든 학문은 ‘파편화’의 길을 걸었다. 그것이 이 시대 학문이 가진 ‘타락’의 한 양상이다. 각자 나름의 전문성

을 가진 학자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벗어난 무언가를 자신과 다른 분야의 학자와 논하는 것은 편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1981년 한국의 상황은 학문의 길을 걷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길을 찾는 목마름을 주었고 그 목마름으로 ‘통섭’을 향한 이 땅의 기독교 학문 운동은 시작되었다. 공학자가 신학과 철학을 읽고 과학자가 경제학과 미래학을 읽으며 길을 물었다. 여러 전문영역을 넘나들어야 하는 불편함과 씨름, 이것이 지난 반세기 기독교 학문 운동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아직도 우리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풍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풍요는 1981년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던 자유와 정의 따위는 이제는 더는 문제가 아닌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우리의 꿈이 너무 작아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C. S. 루이스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커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작은 것이 문제라 했다. 학자의 꿈이 논문 편수와 연구비 액수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너무 작은 것이다. 그리스도인 학자라면 더 큰 꿈을 가져야 한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곧 세상의 난제와 씨름할 수 있는 통찰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 학자들 모두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주께 구하는 바램을 품어본다. 그리하여 이 시대 중심에 놓인 의제들을 해결하는 통섭의 학문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이루어 내는 날을 꿈꾸어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이다. ‘크리스천과학기술인포럼’과 ‘나눔과기술’ 그리고 ‘적정기술학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의 설립에도 참여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사로 섬기고 있다.

방바닥 모임에서 커피숍까지

박문식 (한남대 기계공학부 교수 / 동역회 이사)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와 함께 40년을 지내온 적지 않은 시간을 되돌려 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이기도 한 것 같다. 나의 경우 1987년 석사과정 입학부터 시작된 일이니 한 37년 정도 되는데, 확실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그 세월을 관통하는 분명한 하나의 즐거리였음은 틀림없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 교회 사역에 열심인 것,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전도와 선교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 직장 신우회를 잘 섬기는 것 등이 있겠고 또한 신앙과 학문의 연구나 저술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의 경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에 맞게 현장에서 살고자 했던 것이 핵심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겠다.

37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니 요즘 말로 감성이 크게 달라졌음도 느껴지는 것 같다. 나는 해병대를 제대하고서 세상에 내가 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을 준비하였고 카이스트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 홍릉 캠퍼스에는 과학원 교회라는 모임이 있었다. 교회라고는 하지만 예배당이나 담임목사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고 학생들이 교수 아파트 옆 동의 보일러실 같은 공간을 얻어서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는 식이었다. 예배당이 아니다 보니 좌석은 없었고 그냥 바닥에 둘러앉아 통기타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찬양을 따라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되면 남양만의 두레마을로 노동 및 수련회로 다녀오곤 했는데, 거기서도 널찍한 방에 빙 둘러앉아 특강도 듣고, 끝날 것 같지 않은 토론도 이어지곤 하였다.

나중에는 우리 모임에 전임 사역자로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방 수련회는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로 선교로 시골 교회를 돌곤 했는데, 그곳에서도 여지없이 큰 방에 둘러

앉아 각종 모임을 하곤 하였다. 방에서 둘러앉은 모임은 모든 사람의 얼굴을 잘 볼 수 있으며 표정 하나하나도 읽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때의 감성은 말 그대로 '페이스 투 페이스' 아니었던가 싶다. 다만 자매들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는데 지금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 했던 것 같다. 누가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쉼 들어주어야 하고 도중에 자리를 뜬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다. 당연히 내가 말을 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몇 배가 더 많게 된다. 지금도 그때의 생각이 가끔 나곤 하는 것을 보면 그때의 감성이 가슴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어떨까? 얼굴을 맞대고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감성은 사라졌고 지금은 SNS가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 아날로그 감성이 디지털로 변화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디지털 방식은 선별적이고 시간의 분배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면이 많지만, 아무래도 방바닥 모임에서 느꼈던 공감과 소통과 경청의 감성은 느낄 수가 없다. 기독교 세계관도 어떤 면에서는 기술접목 지향적인 한국문화에서 일면 디지털화와 같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만약 그렇다면 방바닥 모임과 같은 풍성한 감성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모임이다 보니 주제에 대한 충실도는 높으나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생활공동체적인 면모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사방에 십자가가 보였던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사뭇 다르다. 지금은 커피숍이 정말 많아졌다. 특히 내가 사는 대전지역은 상대적으로 더욱 많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별다방이 다섯 개나 된다. 그 많은 커피숍도 주말에 가보면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많다. 커피숍도 좋은 대화의 장소이다.

이제는 대부분 교회도 커피숍을 가지고 있어서 교인들이 모임을 하곤 한다. 나는 커피숍이 40년 전 방바닥 수련회의 감성을 살려내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렇게 되려면 공간의 재배치가 좀 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한 오십년 사이에 소달구지 끌던 것부터 시작해서 디지털화된 인공지능 자율주행까지 모두 경험하고 있고 그 시기 동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줄기를 붙잡고 있다.

지금은 기독교와 예수님과 세계관을 붙잡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세대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유가 있지만 딱 한 가지로 말하라면 나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복잡한 생각으로 인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사람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과 관련지어 생각하며 살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또한 우리 단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래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4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수련회 감성, 방바닥 모임의 감성이 있어서가 아닐까 (나 혼자) 생각해 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밥상 공동체를 통해 이끄셨고 제자들은 방바닥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은거지를 중심으로 모였다. 우리도 다락방의 감성을 살려내면 좋겠다. "들어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행 1:13)

상) FAITH & LIFE



글쓴이 박문식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이며 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한양대를 거쳐 카이스트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수가 되기 전 대우중공업 우주항공연구소와 보잉민항기 그룹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교회는 한남대학교회 시무장로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미래 - 귀향의 길을 수축하며

이민경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조교수)

이란의 사미라 마흐말바프(Samira Makhmalbaf)의 영화 <칠판>(blackboard)에서 선생님들은 큰 칠판을 어깨에 메고 황량한 사막, 길이 없는 곳에서 가르칠 학생들을 찾아다닌다. 만나는 아이들에게 글을 배워보겠느냐고 묻지만, 배우려는 아이들이 없다. 결국 칠판은 공습대피용 판막이로, 환자를 나르는 들것으로 사용된다. 20세였던 영화감독의 눈으로 보았던 이 세계는 생존만으로도 살아있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한다고 할 만한 상황 속에서, 배울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는 교사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준다. 오늘날 교육의 현장에서,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현장에서, 혹은 기독교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본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대학에서 지난 십 수년간 기독교 세계관을 직·간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대가 지날수록 맥락적 소통이 쉽지 않은 경우도 생겨서 고민하던 차에, <소명과 진로네비게이션>을 통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고전읽기와 창의적 글쓰기>를 통해서는 글로 학생들과 만나게 되었다. 특별히 자신을 노출하는 글이 불편한 학생들을 수업에서 만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레비나스(E. Levinas)가 말했던 타자의 얼굴을 보는 일이었다. 분명 수업에서 학생들을 만나지만, 그들의 눈코입을 넘어

선 '타자'라는 인간을 만나는 순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였다. 학생들은 종종 들리지 않는 소리로 말한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합니다. 그냥 수업만 하세요", "당신의 수업이 나의 미래와 무슨 상관인가", "바른 가치관이 나의 직업과 무슨 상관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는 "나는 누구인가"에서 찾아야 하며,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나"라는 공동체는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립하게 된다고 맥킨타이어(A. MacIntyre)는 제시했다. 실제로 "향후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집중하는 대학생들은 직업과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직업과 사람됨,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지 않을 때, 청년들은 왜 대학이 필수코스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손안에는 이 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스마트폰이 있고, 놀라운 검색엔진과 대신 답해줄 인공지능도 학생의 보조자로 함께 강의실에 앉아 있다.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더 구체적인 진로지도도를 위한 지침을 받아왔던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서도 대안대학이 필요한 때이다. 대학의 청년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교양수업에서 '인간됨의 변화'를 제시할 때이다.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상징하는 기독교적인 교육의 전통적인 목표는 학생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거친 저항을 받는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학부모들로부터도, 자격증만 얻으면 전공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학생들이 강의실 절반을 넘길 때도 있다.

이제 교수의 역할은 책상, 강의실에서 나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준비를 도와야 한다. 교수자가 먼저 타자인 학생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다가가며 그 삶에 참여하고 함께 할 시도를 해야 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살아내야 한다. 어느 정도의 함께함이어야 하는가? 과연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서사적 통일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필자는 대학생 시절 예수님을 믿고 곧 공동체적인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 공동체로서의 삶이 근간이 되어 대안공동체학교가 가능했던 것 같다. 대학교수로서의 일정과 함께, 십수 년간 대안공동체 학교를 교육선교사님들과 함께 섬기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다. 몇 해 전부터, 공동체의 리더가 청년들을 만날 때, 첫 질문으로 “빛이 얼마인가?”를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필자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청년들이 함께 모든 일과가 끝난 밤에 음식점의 밤 청소를 시작하면서 때로 필자도 함께 하게 되었다. 말없이 땀을 흘리며 함께 하는 그 시간, 그 공간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곳이 공동체가 하나의 -ism(주의)로 남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시공간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 청년들이 이처럼 세상 속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안공동체 학교의 졸업생들 중 공동체 학교에 남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는 청년들과 최근 카페도 개업했다. 지역의 어른들이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힘을 합쳐 건물주를 만나 창업을 도와 주었다. 카페가 문을 열자, 비그

리스도인 건물주가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러 오고, 한 쪽에는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느 카페에서처럼 소소한 얘기를 나눈다. 이같이 경계를 넘어서 함께 하는 삶,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린다.

혼자만 있겠다는 학생을 지속적인 관계 속으로 이끌고, 타자 지향적인 삶으로 초대하며 마침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는 힘을 어디에서 배울 것인가. 개혁주의 기독교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 됨은 책임성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 책임성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대학교육 과정은 좀처럼 드물다. 월터스토프(N. Wolterstorff)가 제안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반기는, 귀향을 준비하는 실천 지향적 운동이 촘촘한 삶의 스타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미래의 올 예루살렘, 우리의 고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확대된 몸이 귀향의 대로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소망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도록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소망하며 기다리는 학생들을 찾을 수 있는가.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배움을 마련 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찾아다녀야 한다. 칠판을 매고. **FAITH & LIFE**



글쓴이 이민경

이민경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조교수이다. 고신대학 기독교교육학과 석사(M.A.), 고려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고신대학 기독교교육학과 박사(Ph.D)과정을 졸업했다. 저서로 <대학생활의 나침반: 학문, 진로, 그리고 소명> 외 다수가 있고, 역서로 <살롬을 위한 교육(Shalom for Education)>, 공역, (2014)이 있으며, 기독교공동체학교 그레이스스쿨 교육사역(2010~현재)에 참여하고 있다.

정보 전달자에서 신앙 전달자로

박영주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 동역회 이사)



“나는 해가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C. S. 루이스)

“선생님의 기독교 신앙은 실제 수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2000년대 초반 필라델피아의 작은 기독교 교육 대학원에 유학 중이던 필자에게 갑자기 날아든 질문이었다. 사실 교육 철학을 강의하던 맥칼로우 교수(Dr. M. MacCullough)가 필자를 특별히 지목해서 물은 것은 아니었다.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나는 직업이 우연히 교사였을 뿐, 신앙과 교직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한 적이 없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참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고 나를 노력도 했다. 그동안 나는 주일 예배는 물론 다

양한 성경공부와 제자 훈련에 참석해왔고, 신앙 공동체 생활을 즐겨워했다. 더군다나 기독교 학교에 근무하면서 동료 교사들과 자발적인 기도회도 하고, 심지어 학생들을 인솔해서 인도, 태국 등지로 선교 여행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었다.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고, 아침마다 수업 전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에게 설교 비슷한 훈계를 하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었다. 한편 나는 담임 교사로서의 교수 활동에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학생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도자들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학업 성과를 내기 위한 수월성 교육에 집중했다. 그러나 나를 열심있는 신앙인이자 교사였던 나에게 기독교 신앙은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였고, 교직 생활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일종의 십자가 같은 인생의 과제였을 뿐이었다. 즉, 이 역시 내 개인적인 문제인데, 기독교 학교라는 안전한 공동체에서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겨왔던 나에게 맥칼로우 교수의 질문은 충격과 부끄러

움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의 저자 파커 팔머 (P. Palmer)는 그 역시 학생들에게 단지 사실들을 전달하며 안일하게 살 수 없었다고 회고한다.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과 방식은 학생들의 자아관과 세계관에, 더디지만 꾸준하게 형성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 영향력은 교사가 전달한 내용이 학생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기에, 교사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인이 아니라고 그는 역설한다. 즉, 교사는 그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자신의 신앙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에는 교사 개인의 신앙이나 인격, 혹은 수업 역량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고, 그 순간이 필자의 기독교 교사로서의 여정에 전환점이 되었다.

그 이후 나는 마치 해가 떠오르면 만물의 제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일반 지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이 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가르쳐야 하는 과목은 물론 그 가르치는 방식까지도 기독교 신앙에 기초해서 재구성되고 교정·보완해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벽찬 도전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감사하게도 이 과정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를 만나서 더 구체화되고 확장될 수 있었다. 솔직히 처음부터 ‘동역회’에 마음을 열고 참여하지는 못했다. 대학강의를 시작한 이후에도 필자는 학자나

교수보다는 현장의 교사에 더 가깝기에 ‘동역회’에 소속된 학자들의 학문적 논의가 낯설었다. 그보다는 그분들의 소박한 삶의 태도에 더 마음이 끌렸다. 한국의 쉽지 않은 기독교 토양 가운데서 연구자로서 고민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겸손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에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교육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연구와 이를 실제 수업에 통합하려는 다양한 시도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오히려 북미 어느 기독교 학교들보다도 앞선 경험과 자료들을 축적해가고 있다. 이 자산들이 단지 사실과 정보로 남지 않고 실천적 지침자료로 활용되도록 ‘동역회’가 교육의 영역에서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전달자가 되어주는 그리스도인 교사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영주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 교수이다. 미국 컬럼비아인터내셔널 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전(前) 수원중앙기독교등학교 교장,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그때도, 지금도 맞는 것’, 그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것’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2024년은 한국 개신교에 아주 특별한 해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주년뿐 아니라, 최초의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100주년, 미국 선교사 주도로 만들어진 첫 민영방송 기독교방송(CBS)의 70주년이기도 하다. 또, 50주년을 맞은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4차 대회를 열기도 했다. 현대사 속 한국 교회의 부침과 영욕을 읽어낼 기회가 거듭되고 있다.

글 제목을 ‘그때도, 지금도 맞는 것’, 그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것’이라 정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따온 거다. 작품 내용과 상관없이 심오한 타이틀이다. 인간사의 옳고 그름이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통찰한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내다보는 우리의 노력에도 꼭 필요한 통찰이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의 사명은 진리와 맥락 사이에 ‘다리놓기’라고 하겠다. 복음과 우리 삶의 다차원적 국면을 학문이라는 도구로 연결하는 작업이니 말이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본령은 복음주의가 신앙하는 진리를 구체적인 사회, 문화, 경제,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로 수렴된다. 인간의 인식적 한계로 인해 진리의 절대성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과 적용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달라지는 것’과 ‘달라질 수 없는 것’의 지혜로운 분별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동역회’가 나아갈 길을 논하는 일도 40년을 사이에 두고 1984년과 2024년의 다름을 살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아래 표는 그 차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같은 사회인가 싶을 만큼 큰 변화를 보여준다.

구분	1984년	2024년	출처
인구수	4천만여 명	5천백만여 명	통계청
1인당 실질국민소득	670만원	3,703만원 (2023년)	
경제성장률	9.2%	1.8%	
고교 졸업자 대학진학률	27.1%	72.8%	
종교인구	44%	40% (2021년)	한국갤럽
개신교 인구	648만여 명 (1985년)	967만여 명 (2015년)	통계청
비종교인의 개신교 호감	12% (2004년)	6% (2021년)	한국갤럽
20대 종교인구	41% (1998년)	19% (2022년)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30대 종교인구	50% (1998년)	25% (2022년)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 중 “관심이 없어서”	26% (1996년)	54% (2021년)	한국갤럽
자살률	14.4% (2001년)	24.6% (2020년)	통계청

먼저, ‘그때’를 돌아보자. 1980년대 초중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주도로 시작되었고

그 세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 '동역회'의 모태인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의 주역 역시 대학원생과 소장 교수들이었다. 개신교가 젊은 종교였기에 가능했다. 대학진학률이 20%대이던 시절 엘리트 중심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은 지성 사역이었다.

1984년을 사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두환 정권의 폭압적인 통치 아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학생운동을 일상에서 경험했다. 하지만, 양적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 교회는 이에 침묵하거나, 아예 정권에 부역하기도 한다. 이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청년 그리스도인이 복음주의를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 새로운 신앙적 대안이 생긴 셈이다.

그러나 90년대까지 영향력을 확대해가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2000년대 들어 동력을 잃는다. 제도종교에 대한 불신, 특히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강화와 맞물린 결과다. 이 흐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동역회'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는 크지 않다. 1세대와 2세대를 거친 후 세대교체는 지지부진하다. 물론 개별적 헌신을 통해 젊은 세대를 향한 사역은 이어지지만, 침체의 흐름을 거스르는 조짐은 없다. 사실 현재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똑같이 겪는 난제라는 게 더 심각하다. 개신교는 더 이상 젊은 종교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서 이미 오래된 종교, 낡은 종교라는 인식이 공고해져만 간다.

그렇다면 '지금'을 사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떤가. 철학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이후 독재와 같은 가시적 악은 줄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글로벌 구조 속 자본의 힘은 날로 강해지고, 경제성장의 정체가 빚어낸 치열한 경쟁으로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삶은 피폐하다. 취업난과 OECD 최고라는 자살률이 그 엄혹한 현실을 대변한다. 정치, 세대, 성별로 구획된 갈등과

분열은 혐오의 시대를 낳았고, '공정'이 사회현상 대부분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 교회는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의 든든한 뒷배, 사회적으로 극우적 목소리의 통로, 문화적으로 폐쇄성과 불통의 집단으로 인식된다. 최근 대선 과정, 공직자 청문회, 로잔 서울대회, 개신교 주최 대형집회 등은 공공영역에서 개신교의 이러한 상징적 위치를 굳힌 장면들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 역시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다 할 대안이 못되며, 그들의 암울한 현실에 설득력 있는 복음주의적 해법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은 특정 진영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도구로 오염되기도 한다.

이제 '동역회'가 나아갈 길은 '그때'의 열정과 방법론을 회복하고 재생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적 대안이 되려면 '지금'의 특수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건, (1) 맥락에 따라 진리의 적용과 실천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지성 (2) 현재의 달라진 맥락을 깊게 이해하려는 수고 (3) 변화한 맥락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과 달라질 것을 분별하는 지혜 (4) 그에 따라 포기해야 할 것을 고집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기꺼이 존중하고 수용하는 용기일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진규

서울여자대 언론영상학부 교수이다.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 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CTC 사역의 의의와 미래 방향

유경상 (CTC 대표 / 동역회 실행위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운동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의 사역을,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재조명하고 미래의 교육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주로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성인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더 시급한 일이다. 그 이유는 다음 세대가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그 세계관이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주로 이론적인 강의나 서적

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성인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단순한 공부의 영역에 머물게 할 뿐, 생각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게 했다.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동시에, 기독교 세계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삶을 일치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했다.

CTC 사역은 이러한 다음 세대 세계관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었다. 2007년 청소년세계관캠프로 시작된 CTC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다음 세대에 심어 주고자하는 사명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 CTC의 주요 사명은 가정, 교회, 학교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

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CTC는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캠프, 어린이세계관학교, 청소년세계관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지역 교회나 기독교 학교와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는 가정과 학교, 교회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힘써 왔다.

CTC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목적은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된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하여, 그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그 결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을 실천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이 CTC의 비전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목표는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학생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셋째, 미디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미디어 생활원칙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시간, 재능, 물질을 성경적 관점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모두 다음 세대가 기독교 세계관을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그동안 CTC 사역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본질을 유지하며 그 사역을 다음 세대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음 세대에 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다음 세대가 처한 환경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에 결코 멈추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4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미래 방향의 중요한 축이 되길 소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음 세대에 맞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 콘텐츠 개발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생각과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그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을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헌신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된 어른들이 필요하다! **FAITH & LIFE**



 글쓴이 유경상

CTC 대표이자 평택대 기독교세계관 MTS 겸임교수이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VIEW), 백석대 박사과정(Ph.D)에서 공부했다. 2007년 '기독교세계관훈련센터'(CTC)를 설립했으며, 아세아연합신학대에서 기독교세계관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 <크리스천 씹기>,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등이 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예수, 우리의 왕, 그를 위하여!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 동역회 실행위원)

CUP는 1980년대 후반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출판부로 처음 태동되었다.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이원론적 사고가 기독교에 팽배해 있던 그 시절,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학문의 영역에서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으로 설립되었다. CUP라는 출판사 이름도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CUP_Christian University Press)라는 취지에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초창기는 사역의 일환으로 소책자와 중책자 무크지, 학술지 형태의 책을 출간하다가 2001년부터 출판 영역을 독립하여 운영하면서, 성경적 삶의 적용이라는 측면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 책을 출간하고 있다. CUP의 나아갈 길을 고민하며,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CUP의 비전과 나아갈 길을 정리해 보았다.

세상은 타락한 곳이며 교회를 떠난 삶은 지옥일 뿐이라는 개념이 팽배한 이원론에 기독교가 빠져 있던 상황에서, 나에게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회복의 정체성을 안겨준 매력적이고 신선한 바람이었다. 또한 신앙을 가지려면 이성을 버려야만 할 것 같던 당시의 기독교 가운데서 신앙과 삶의 괴리에 고뇌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무조건적인 신앙을 강조하던 교회에서 의심과 회의의 눈초리

를 차마 드러내지 못하던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은 마음껏 질문하고 사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는 신선한 충격으로 산소와 같이 다가왔다.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은 1980년대 이념 논쟁으로 점철된 시대 분위기에서 '사고하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처럼 우리 세대에 다가왔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명제는 정말 매력적인 주제였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선명한 틀을 제공했다. 타락으로 인하여 왜곡된 부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회복시키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선명한 틀은 삶의 지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 틀은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되었다는 평가를 받곤 했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한때 유행했던 철 지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체계이며, 삶 자체라 할 수 있다. 일견 인생관이라 해도 무방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 없든, 모든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삶의 환경, 종교적 틀, 지역, 국가적 환경과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생긴 세계관은 딱 자르기 힘든 측면도 있다. 교회를 다니지만, 기복주의 세계관을 가진 경우도 많고, 성경을 유교적이거나 권위적 세계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삶이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 구분이 특히나 모호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 세계관은 한물간 유행이거나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더욱 세밀히 살펴 연구하고 적용

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이 원론적인 기초에서 맴돌았다면, 더욱 치열하게 사유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다. 기독교 세계관적 학문과 삶과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연구와 지속적인 열정으로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열매를 만들어내야 한다. 잘못한다고 비판하기는 쉬우나,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는 물음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물음이 신앙 고백 및 교회와 신학의 문제라면, 두 번째 물음은 신앙생활 및 실천과 삶의 문제이다. 성경을 중심으로 신학과 삶을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독교가 바로 서려면, 바른 신학과 성경적 삶이라는 양 날개에 균형을 가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행함으로 연결되고, 성경적 신학과 가치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관이며 삶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성경의 원리를 기반으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문과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현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CUP는 이런 생각들에 기초해 있고, 기독교 세계관의

두 축인 일상성과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성경의 깊은 적용으로부터 확장된 책들을 더욱 기획하고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모체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관련 기관 출판사로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발맞추어 새로운 저자를 발굴하려 노력한다. 또한 요즘 화두인 선교적 교회, 기독교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을 개발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모토를 잊지 않고 복음의 일상성과 공공성이라는 영역을 탐색하며 나아가리라는 다짐도 한다. 이제 CUP는 특별히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살아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나누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하는 나눔터의 출판을 꿈꾸고 있다. 부족하지만 CUP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귀한 원고를 추천해 주시고, 섬세한 제안을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예수, 우리의 왕, 그를 위하여!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합 2:14).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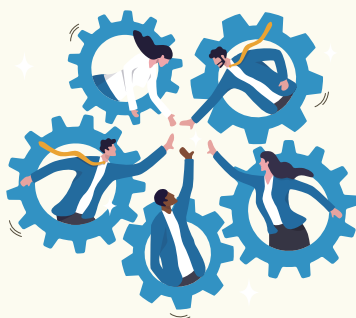
글쓴이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이며 편집장이다. 기독교대학살립동역회(DEW) 초창기 때 간사로 합류하여 월보 <기독교대학>과 <통합연구>의 편집을 담당한 바 있다. 독자들에 삶에 뿌리 깊은 자양분이 되는 책, 마음을 담아가슴으로 전달되는 귀한 책을 만들고자 하며, 그 작은 몸짓이 하나님 나라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 청소년과의 연합을 모색하다

장슬기 (높은뜻씨앗스쿨 교사 / 동역회 실행위원)



필자는 과학교육을 전공하던 한국교원대학교 시절, 2년 동안 허무주의에 깊이 빠졌었다. 당시 가톨릭 교인으로서 허무주의의 늪에서 ‘총체적 진리’를 찾으려고 철학책과 신앙 서적을 탐독했다. 3학년 때, 제임스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과 프란시스 웨퍼의 삶에 관한 저서를 접한 후 지성의 거듭남을 경험했다. 4학년 CCC 여름수련회에서 “주님,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로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 교사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라는 주제를 붙들고 기도한 끝에, 인도해 주신 미션스쿨, 안산동산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1995년 교직 첫해, 고민했다. “과학 수업에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녹여 넣을 수 있을까? 성당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교육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실천으로 이어져, 빅뱅과 지질연대를 가르치며 창조론과 진화론을 다루었고, 진학지도보다 소명 교육을 개발하여 보급했고, 과학 수업 시간에는 남북통합의 관점으로 기후 수업을 개발했고, 기독교 미션스쿨 교사임에도 가톨릭 학생들의 제자화 모임을 만들었고, ‘DDF’라는

교회 학생들의 제자화 모임도 지도했다.

교직 15년 차에, 미션스쿨에서 기독교대안학교로의 부르심을 듣고 샘물중학교, 소명중고등학교, 별무리학교, 높은뜻씨앗학교에서 교감과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공교육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성경에 입각한 대안적 기독교 학교 모델을 세우는 거룩한 실험을 해왔다. 기독교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세워나가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적 가르침이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인가?”

소명중고등학교에 재직할 때, ‘라브리’라는 변증 중심의 학생토론모임을 운영하며, 라브리 공동체 3박 4일 탐방을 가게 되었고 성인경 대표님과 인연으로 해마다 학생들과 라브리 공동체를 방문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는 2018년 즈음, 실행위원으로 계시던 지인을 통해서 실행위원으로 추천을 받아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다. 공교육계 현장에서의 좋은교사운동과 연대하고, 기독교대안학교의 그리스도인 교사들과의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 뜻을 품고

실행위원회 활동을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동역회의 실행위원으로 섬기며, 이 시대의 교육적 모델이 될 수 있는 기독교대학교들과 ‘동역회’ 간에 협약식을 진행하였고, ‘동역회’의 과학전공 교수님들과 기독교대학교의 과학 선생님들을 연결하여 <기독교사, 질문하다>라는 영상을 촬영하여 ‘동역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였다. 앞으로 사회과, 국어과, 수학과 등도 진행할 것을 기획 중이다. 이 과정을 통해 ‘동역회’ 교수님들과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적인 나눔과 토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확산시켜야겠다는 뜻을 품게 되었다. 더불어 올해는 ‘동역회’의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그리스도인 청소년의 기독교 세계관적 저변확대를 위해 ‘기독교 중고등학생 독서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훌륭한 세계관 입문서가 될 수 있는 <기독교세계관 바로세우기>(류현모, 강해리), <쉽게 풀어쓴 세계관 특강>(손봉호), <니고데모의 환경>(신국원) 등의 양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독서대회다. 앞으로도 청소년기의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양서를 접하고 탐독하는 독서운동의 시작점이 되길 소망해 본다.

‘동역회’의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에 관한 글을 그리스도인 교육자의 자격으로서 요청받았을 때, 필자는 제일 먼저 성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제관계와 동역의 ‘바통’이 떠올랐다. “우리는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 청소년과의 연대를 위해, ‘동역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만연한 비기독교적이며 인본주의적인 문화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잠식되어 가고 있다. 인본주의와 다원주의 뿐만 아니라 경박하게 상품화된 자본주의, 진리인 양터를 다진 유물론과 과학주의, 정치적 편견으로 도배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은

둔해 있던 무속적 신앙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 청소년들의 두뇌는 영상중독으로 읽기 어려운 양서를 거부하는 두뇌로 바뀌고 있다. 점점 세계관적이며 철학적인 사유는 시대의 뒷안길로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자유주의로 유럽이 탈기독교화가 되고 있음에도, C. S. 루이스, 프란시스 셰퍼,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도에베르트, 르네 지라르 등 엘리야 같은 그리스도인 사상가와 변증가들이 순전한 복음을 지켜내었고, 그 뒤를 이어 알리스터 맥그래스, 존 레녹스, 윌리엄 크레이그, 낸시 피어시 등 엘리사 같은 그리스도인 사상가와 변증가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땅에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동참할 다음 세대의 엘리사가 있을까? ‘동역회’와 한국리브리션교회를 이어갈 그리스도인 청소년이 있는가?

이 시대는 신앙의 합리성에 관해, 신앙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SNS의 문화들로 잠식당하고 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 청소년과 청년은 더 크게 동요될 것이며, 지성적인 혼동을 경험할 것이다. 이 위기 상황을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은 직시하고, ‘동역회’와 함께 ‘기독교 변증’을 위한 교회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더불어, 다음 세대의 엘리사를 키우고 있는 기독교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그리스도인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연대하여 관심 전공별로 만나, 학문과 직업 세계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비전을 공유하는 ‘소명 캠프’가 구현되기를 소망해 본다. FAITH & LIFE



✍ 글쓴이 장슬기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의 통일교육을 전공하였으며, 연구소장과 교감으로 여러 기독교대학교들을 설립하고 섬기고 있다. KBS, MBC, SBS 등을 통해 과학 수업이 소개되었으며, 미래 교육, 기독교 교육, 대안 교육, 소명 교육, 통일 교육, 교수학습법, 기원과학 교육 등에 관해 강의를 하고 있다.

목회자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길

김정일 (예수비전교회 담임목사)

필자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와 인연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목사안수를 받고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 유학하면서부터이다. VIEW에서 공부하면서 필자는 비로소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역사를 알게 되었다.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VIEW가 설립되었는지,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핵심에는 바로 '동역회'가 있었다. VIEW를 졸업한 이후, 필자도 '동역회' 회원이 되어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VIEW에서 유학을 마치고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송태근 담임목사의 지시로 2010년부터 강남교회 내에서 기독교세계관학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교 사역을 준비하며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진행할까 고심했다. 여러 고민 끝에 VIEW의 커리큘럼을 모델로 삼았다. '세계관기초', '한국인의 세계관', '경제', '채정', '교육', '윤리', '문화', '환경', '과학기술', '일' 등을 주제로 삼아 매주 한 주제씩, 10주 과정으로 교육커리큘럼을 수립했다. 그리고 분야별로 최고의 강사님들을 모셨다. VIEW에 와 강의했던 교수님들, 그리고 직간접

적으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연관된 분들이 다수였다. 강진구, 김정옥, 박진규, 방선기, 백종국, 성인경, 손봉호, 신국원, 안점식, 유경상, 이만열, 이승구, 장수영, 조성표, 최용준, 최태연, 추태화 교수님 등이 강남교회와 이후 언급할 삼일교회 세계관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던 분들이다. 교육은 강의가 핵심이었지만, 강의 후 조별토론, 독서과제, 영상시청과제 등을 함께 하며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료할 때는 조별로 원하는 주제 하나를 연구해 발표하도록 하였다.

2013년 사역을 삼일교회로 옮기면서 기독교세계관학교 사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기존에 10주간의 입문 과정을 계속 진행하면서, 한 가지 특정 주제를 정해 6~8주로 진행하는 심화 과정을 개설하였다. '공동체', '일과 소명', '채정', '세계관' 등을 주제로 삼아 입문 과정에서 개론 정도로 다루었던 주제들을 깊이 다루었다. 그리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세계관학교'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도록 한 3년 6학기 과정의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였다. '어린이세계관학교'는 부모가 먼저 목요일에 교육을 받은 후, 각자 역할분담을 해 매주 토요일 오전에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공동학습으로 진행하였다. 수업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되기는 하지만 부모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져 모임이 참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옆에서 지켜보며 부모들의 열정과 헌신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 사역을 진행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았다. 기독교 세계관학교 사역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Regent College)에서 보급한 리프레임(Reframe) 과정을 기독교세계관학교에 도입해 줌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강남교회와 삼일교회에서의 12년간의 기독교세계관학교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목도할 수 있었고, 그것이 큰 보람과 자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 사역을 하다가 2021년 필자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예수비전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한 부서에 한정된 사역이 아니라, VIEW에서 배우고, 강남교회와 삼일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 사역을 하면서 정립하게 된 '기독교 세계관적 목회'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들을 자세히 나누는 것은 필자가 진행한 기독교 세계관 사역이 지난 40년간 진행된 '동역회'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작은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도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필자와 같이 '동역회'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영향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인 필자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동역회'가 나가야 할 길 하나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교회 안에서 잘 전개될 수 있도록 교회를 돕는 것이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가 변할 수 있기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사

역이다. 그 교육의 내용은 단순히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설교에, 제자 훈련과 양육에, 부모교육에, 다음 세대와 노년 세대를 위한 목회에, 교회 운영 등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 사역을 목회에 적용하고 접목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동역회'가 그것을 풀어낼 플랫폼의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나 양육훈련용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잘 만들어진 기독교 세계관 교육용 소그룹 교재가 반드시 출간되면 좋겠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하는 누룩에 비유하셨다. '숨어 잘 보이지 않지만'(은닉성), '서서히'(점진성), '그러나 반드시'(필연성)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역회'의 지난 40년간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이와 같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을 것이다.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주목도 받지 못했지만, 묵묵히 서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헌신해 온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드린다. 비록 약함과 부족함도 드러나고, 낙심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동역회'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지속되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정일



예수비전교회 담임목사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B.E.)와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M.A.C.S)를 졸업했고, 백석대학교 기독교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강남교회와 삼일교회에서 12년 동안 기독교세계관학교 사역을 진행하였다.

아름다운 ‘수고로움’에 대한 묵상

서나영 (미국 스펔전칼리지 교수)

한 학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많은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갈등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며, 평생을 외로움과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끔 이 여정 속에 지치지 않고 달려갈 힘을 얻곤 하는데, 같은 고민을 했던 선배학자가 고군분투를 하며 길을 낸 입구를 찾을 때다. 그 뒤를 따르는 자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더 나은 선에서 출발해 집중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지닌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학자로서의 삶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는다.

우리는 조직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자의 길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나와 ‘다른 관점’의 그리스도인 때문이다. 굳이 기독교 분열의 역사를 묵상하지 않아도, 당장 자신이 속한 그룹 안에서의 갈등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겪어야 하는 번거로운 수고로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계산이 빠른 학자들은 이상적인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망상을 빨리 접고 삶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를 멀리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공동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각자 역할과 기능의 분담, 리더의 임명, 필요한 물품들과 장소를 갖추는 일, 기록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지출에 대

해 정확한 계산을 하는 일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많은 불평과 싸움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 신약의 초대 교회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를 이루는 수고에 익숙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를 일궈온 선배학자들의 고뇌와 씨름이 그렇다. 학자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 오늘날 세상 한가운데에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수호하고자 갈망하는 모든 입문자에게 좋은 터전이자 위로의 울타리를 세웠다고 확신한다. 개인의 무지함도 죄를 자각할 수 없어 위험하지만, 집단과 공동체의 무지함은 더 큰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역회의 가치와 의미는 ‘맹목적이고 감정적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집단적 무지함’을 향해 학자의 사명으로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를 파헤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한 모든 노력에 있다고 믿는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는 시니어 학자들의 노고를 다 알 수 없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으며, 쌓인 데이터의 양도 놀랄 만큼 풍성해졌다. 그러나 중세시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던 수도원 사제들이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일반 신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접할 수 있는 성경 신학에 대한 정보의 양은 그들의 신앙의 깊이와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 한국전쟁 이후 성경을 구하기 힘들었던 선조들의 신앙의 진정성은, 핸드폰 안에 여러 버전의 성경을 담고 다니는 세대에 와서 더 깊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개인적으로 '동역회'에서 성장하고 배운 모든 순간은 선배학자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였다. 신국원, 박영주 박사님과과의 짧은 만남에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일상의 대화를 통해 가장 많이 소속감을 느꼈으며, 지나가며 해 주시는 한 마디에 그리스도인 학자로서의 성찰이 가장 활발히 일어났다. 학회 행사와 학술적인 강연과 토론 및 칼럼들을 통해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전략과 정보를 얻는다면, 개인적 관계나 멘토링이 주는 영향력은 실제적 소속감을 느끼게 했다.

오늘날 젊은 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나 지식의 양이 아니다. 형식적 글이나 강연으로 답을 수 없는 지혜의 언어는 개인적 관계를 통해 비형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닐까 한다. 40년 동안 '동역회'가 순항했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서로 인격적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서로 다름에 관한 대화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어느 날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종교지도자들의 언어와 행동이 너무나 오늘날의 '학자'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철저히 이성적이었고 논리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세세히 꺼내 읊을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 비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 지략으로 자신의 직업적 바그루트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론의 전문가였다. 대중의 인기와 사회적 지위와 풍족한 물질을 함께 누리며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길, 그 길을 이 세대 학자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지능이 높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잘 따르는 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젊은 학자로서 시니어 학자에게 바라는 한 가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화했고, 어떻게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았으며,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으며, 어떻게 다름을 이해하면서도 진리를 지켜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왜 동역이 필요한지, 불필요해 보이는 수고로운 헌신이 왜 가치 있는 길인지?”에 대한 확신이다. 유사 이래 어쩌면 가장 편리함과 개인의 안위를 지키는 것에 능통한 전문가로서의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는, 특별하고 지혜로우며 인격적인 멘토링이 절실히 보인다. '동역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Soli Deo Gloria! **FAITH & LIFE**



글쓴이 서나영



미국 스펠칼리지 교수이다. 미국 남침례신학교(SBTS)에서 교회음악(MM), 신학(M.Div. equi), 기독교예술학(Ph.D)을 공부하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소장학자 그룹 및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서 문화예술 전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 지성 운동’의 재생산이 가능하려면

김재완 (케임브리지대학교 사회인류학 박사과정 수료)

나는 신학을 공부하던 학부 시절 신국원 교수님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접하였다. 아마 그 계기가 아니었다면 인류학으로 전공을 바꾼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보수적인 신앙 환경에서 자란 데다가 보수적인 신학교까지 갔으니 말이다. 인류학은 사회과학 안에서도 때로 무척 진보적인 학문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인류학 석사과정에 지원하던 내게는 두려움보다 설렘과 기대가 더 컸다. 그 이면에는 학부에서 배웠던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학문을 하는 ‘기독교 지성’에 대한 호기심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박사과정의 여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는 신국원 교수님을 비롯한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이하 ‘동역회’)의 헌신과 사역에 큰 빛을 지고 있는 셈이다.

나처럼 ‘동역회’에 빛진 마음을 갖고 있는 또래들이 신학교와 목회현장에 많이 있다. ‘동역회’의 유산은 복음주의 배경의 신학생 및 목회자의 안목을 넓혀주고 도전하게 한다. 앞으로도 ‘동역회’는 복음주의 배경의 교회와 신학교 안에서 이 역할을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학문을 하는 오늘날의 대학원생들에게 ‘동역회’의 유산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2018년 가을 인류학과 석사과정에 들어와 학위를 마치던 2021년

봄까지 그리스도인 대학원생들을 모아 거의 매 학기 스터디그룹을 운영했다. 이공계, 자연계, 사회계, 인문계 등 거의 모든 대학원생들이 모임을 거쳐 갔다. 그 모임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것은 내가 익히 들었고 또 내심 그렇게 되길 바랐던 80년대 ‘기독교학문연구회’와는 많이 달랐다. 물론 이를 만들고 주도했던 나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이유는 각 학문 분야들이 전문화를 거쳐 너무나 세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 대학원생’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임에도 서로의 연구 및 연구 고민을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심지어 같은 단과대 안에서도 분야가 다르면 내용 이해 자체가 어려웠다. 대학원생들은 대개 전문화된 학문 분야들을 따라잡기에도 벅찬 상황에 있다. 그러니 그 내용을 다른 전공 사람들과 나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 각자 공부하는 내용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해하길 시도한다는 것은 나부터가 부자연스럽고 또 무모한 일처럼 느껴졌다.

2000년대에 한국에서 벌어진 기독교 세계관 논쟁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여러 한계 및 문제점을 논하였고, 그중에는 1980~90년대에 다져진 기독교 세계관의 사상적 토대가 각 학문의 ‘각론’으로 확장되지 못했

다는 지적도 포함되었다.¹ 그리고 또다시 20년이 지난 2020년대에도 이 문제의식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 같다. 그동안에도 학문의 세계는 기하급수적으로 세분화되고 있었는데 말이다.

‘기독교학문연구회’ 같은 성격의 스터디그룹이 결성되기 어려웠던 두 번째 이유는 오늘날 대학이라는 공간 및 지식인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1980년대 한국 대학과는 다르게 오늘날 대학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사회에 대한 ‘지성’으로서의 책무나 공적인 양심에 대해 씨름하는 곳이 아니다. 지식인의 군상 역시 대중을 계몽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박사 학위 취득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며, 일반대학의 교원 신규채용 중 약 절반이 ‘비정년 트랙 전임교수’다. 이 처절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원생은 나날이 전문화되어가는 세부 분야에서 일정량 이상의 논문을 생산해내는 테크니션 혹은 강의노동자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그리스도인 대학원생 스터디 모임을 학문 세계와 연결하기보다 단절시켰다. 스터디그룹은 대학과 차단되어 ‘숨통 트이는 곳’이 될 때 가장 큰 결속력을 가졌다. 우리의 모임은 자연스레 연구실 동료들 및 교수에게 받은 상처와 고충을 털어놓는 서바이벌리스트들의 성토장, 막막한 현실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곳이 되었다. 무척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막연히 기대했던 나로서는 마음 한구석에 당혹감과 아쉬움이 남았다. 이 이면에는 지난 40년간 급격하게 바뀐 한국 대학의 성격 및 지성인의 군상이 있다. 지성의 조건이 변

화하고 그 기반 자체가 위태로운 현실에서 학문을 하는 오늘의 대학원생들에게 ‘기독교 지성’이란 숨 띄우는 우리들만의 아지트 외에 달리 무엇일 수 있을까?

나의 학문 여정을 가능케 한 ‘동역회’의 지난 40년 유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은 남는다. 복음주의 ‘기독교 지성’의 풀뿌리였던 1980년대 스터디그룹이 과연 2020년대에도 재생산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20년 넘은 문제의식인 위 첫 번째 이유 못지않게 두 번째 이유를 진지하게 대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문의 장에서 목소리도 형체도 없이 위태롭게 존재하는 수많은 서바이벌 리스트들, 공공연히 작동하는 불평등, 차별, 소외, 역기능 등, 이는 ‘기독교 지성’을 넘어 학문의 장 모두를 아우르는 공적인 문제이다. 말하자면, 방 안의 코끼리를 몰아내는 데 다시 한번 ‘기독교 지성’의 공적인 양심과 책임 및 증언이 빛을 발해야 한다. 이로써 나와 같이 ‘동역회’에 빛진 마음을 지닌 대학원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독교 지성’으로서 ‘동역회’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앞으로의 40년도 지속할 수 있길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재완



총신대 신학과 졸업 후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회인류학과 박사 수료 후 ‘Becoming peacemakers: An ethnography of the Christi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ns’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현장연구를 진행 중이다.

1. 이러한 문제의식마저도 주로 운동가, 신학자 그룹에서 나왔다는 점은 하나의 아이러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년 : ‘걸어온 길에 대해서’ - 시니어 대담

이번 호 <신앙과 삶> ‘사람 사이’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가 지난 40년 ‘걸어온 길’을 정리 평가하고, 앞으로 40년 ‘걸어갈 길’의 미래를 모색하는 두 차례의 대담회를 마련하였다. 하나는 시니어 대담으로서 모두 실행위원장으로서 ‘동역회’를 섬긴 분들의 대담이고, 또 하나는 주니어 대담으로서 현재 모두 ‘동역회’의 회원이자 그리스도인 소장학자로서 한국 사회와 학계에서 왕성한 활동이 기대되는 분들의 대담이다. 우리 모두가 이 대담회를 통해 ‘동역회’ 지난 역사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앞으로 모든 구성원이 기대와 소망 속에 더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동역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나침반을 선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진소개(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성표, 석종준, 최태연, 박동열, 김태환

대담자(시니어)

조성표 (경북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동역회 이사)
최태연 (백석대 기독교철학 은퇴교수, 동역회 이사)
김태환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동열 (서울대 불어교육과 교수, 동역회 이사)

사회자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실행위원)

석종준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2024년은 우리 ‘동역회’가 지난 40년, ‘걸어온 길’을 평가하고 앞으로 40년, ‘걸어갈 길’을 모색하는 시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학자로서의 연구 분야와 ‘동역회’에서 언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성표 1986년 3월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로 부임하면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양승훈 교수님이 미국 휘튼대학으로 안식년을 가시면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의 조직을 설계한 죄(?)로 대표 격인 기획 담당으로 섬겼습니다. 그 해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사회를 조직하셨습니다. 1993년 사단법인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DEW)가 인가를 받으며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2009년 통합 이후에는 학회장을 맡았는데 이때가 개인적으로는 행

정을 떠나 학문연구를 하게 되어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최태연 저는 기독교 철학이 전공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철학자 폴 리코르의 해석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지요. 기독교 철학을 대학 시절 손봉호, 김영한 두 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분들을 통해 인생의 전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 전공이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생겨났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동역회’에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후인 1996년부터 강영안, 신국원 교수님의 소개로 참여했고, 그때부터 실행위원회, 후에는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다 보니 28년이 흘러갔네요.

김태황 저는 국제통상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역회’는 2000년경 처음으로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 학술대회에 참석 후, ‘기학연’ 경제분과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실행위원장을 맡은 기간인데요. 2017년 2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6개월간 ‘휴직’(?) 기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023년부터 ‘기학연’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동열 전공 분야는 언어학입니다. ‘기학연’은 1988년 이영덕(서울대), 정확실(이화여대) 교수님 댁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책을 함께 읽으면서 처음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유학을 마친 후, 숙명여대 근처 ‘기학연’ 사무실에서 <신앙과 학문>을 연구재단(KCI)에 등재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동역회’ 실행위원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석종준 모두 오래전부터 ‘동역회’에서 다양한 역할로 섬겨 오셨고 현재도 이사, ‘기학연’ 학회장 등으로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모두 공교롭게 실행위원장으로 동역회 전체 살림을 이끄셨던 경험도 있으시지요. 각자 생각하시

는 ‘동역회’ 지난 40년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어떤 것이지요.

최태연 저는 ‘동역회’가 주도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1980년대 군사정권과 좌파 운동권의 극한 대립 사이에서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대안적 선택으로 탄생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사회·문화 현실에 대한 교회의 책임에 무관심하거나 편협한 입장을 가진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약점을 보완해서 더 성숙한 복음주의로 나가도록 하는 운동이라는 거죠. 실천적으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학교교육운동’,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법률가회’, ‘밀알복지재단’ 등 기독교 NGO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지요. 이론적으로는 복음주의가 등한시한 기독교 학문 연구를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시킨 점도 무시할 수 없지요. 이러한 운동을 실천과 이론을 통해서 40년 동안 꾸준히 해왔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황 학자의 기본 관점은 비판적입니다. 비난이 아닌 학문적 중립성에 기반한 비판 의식이 곧 학문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 학문에서 비판적 문제의식으로 학술 활동을 하는 일은 일반적이고 필수적이지만, 기독교 신앙과 학문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학문영역에 따라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길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자의 비판적 사고와 논의가 자칫 신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적 신앙의 태도가 학문 활동 방식과 태도에 배치되는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역회’가 ‘기학연’을 통해 지난 40년간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하여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 노력을 정진해 온 측면은 그리스도인 학자와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버팀목이자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학자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학문을 발전시키려는 관점과 태도가 ‘동역회’의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열 무엇보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각 영역에서 현대적 실천을 하도록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담론을 중심으로 여러 동역자 사이의 만남의 장을 제공한 것과, 지난 40년 동안 연구와 도서출판을 끊임없이 실천한 것도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표 본래 학자들의 모임은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역회’는 학제 간 연구만이 아닌 우정 있는 교제를 계속하여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모여 연구와 우정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단일 진리인 성경 아래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0년에 걸쳐 일관성 있게 깨달은 것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석종준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통합 이전(1984년~2009년)은 ‘기독교학문연구소’(KCSI)와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가 각자 별도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해온 시기였고, 통합 이후(2009년~2024년)는 양 단체가 각 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하고 한 단체가 되어 현재까지 활동해온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학술지 〈신앙과 학학문〉, 춘계·추계 학술대회, 기관지 〈월드뷰〉(2012년~2018년)를 중심으로 활동해 오다가, 〈월드뷰〉를 ‘동역회’에서 공식적으로 분리하고 새 기관지 〈신앙과 삶〉(2019년~2024년)을 발행했지요. 우선 각자의 시각에서 2009년 통합 이전 시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간단히 말씀해주시지요.

최태연 ‘기독교학문연구소’는 기독교 학문 연구와 기독교 문화 운동에 적극적이었고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는 기독교 대학 설립 운동으로 시작해서 〈통합연구〉라는 논문집 발간을 통해 기독교 학문 연구와 기독교출판에 역점을 두었지요. 또한 학문 분야도 ‘기독교학문연구소’가 인문·사회과학에 관심을 집중했다

면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는 인문학뿐 아니라, 자연과학과 공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두 단체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한국 복음주의 교회에서 맺은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두 단체 모두 참여자와 활동에 제한점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김태환 통합 이전 ‘기학연’은 각 학문영역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관점과 정체성을 확립하느냐가 본질적인 목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여자들이 매우 순수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학문 분과별 세미나 또는 독서토론을 통해, 해당 학문 분야(저의 경우는 경제학)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학술 주제를 폭넓게 조망하고 대안 제시를 시도한 노력이 기독교 학문에 큰 생동감과 사명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합니다. 신앙과 학문은 별개라는 일반적 인식을 되돌려서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의지가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중심으로 교회와 선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대학의 청년들은 신앙의 사회적 실천과 공공성에 대해 많은 목마름이 있었고, 자신이 서 있는 전문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해 내야 하는지에 대해 기독교 공동체는 전혀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에서 지성의 역할이 배제되는 분위기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청년들에게 신앙의 지평 확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석종준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난 2009년 통합 이후 ‘동역회’ 활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최태연 통합을 위해 함께 애썼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두 단체는 하나가 되어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었지요. 기독교 학문의 연구 활동은 <신앙과 학문>이라는 학술지와 '기학연' 학술대회로 통합되어 참여자 수나 연구의 폭이 넓어졌어요. '동역회'의 활동영역도 캐나다의 VIEW,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기관인 CTC, 기독교출판사 CUP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 통합을 통해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게 된 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약 2년 정도 진통 끝에 기관지 <월드뷰>가 2018년 5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많은 동역자에게 인간적 아픔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통해 한가지는 분명해졌어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진정으로 성경적 기독교 학문과 실천 운동이 되려면 좌우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항상 특정 이데올로기와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2018년 이후 '동역회'가 이데올로기 문제에 더 신중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와 실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항 통합 이후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학술 활동과 교육 및 대외협력 활동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동역자 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활동의 범위가 확장되고 구심점의 중량감이 증대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대외적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활동과 출판 활동도 확장되었고요. 2015년경부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노력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2018년 <월드뷰> 분리에 곧이어 새로운 기관지 <신앙과 삶> 발간을 계기로 우리 '동역회'는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나 사회정치적인 현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본연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암묵적

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독교 본질과 연관된 현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태도를 표명해야 하지만, 올바른 기독교 신앙에 기반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적 견해의 차이는 대내외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수용성과 포용성을 발휘하고 있는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더욱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세련되어야 하지만요.

박동열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관 담론의 총론만으로 존속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각론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통합 이후 '동역회'의 활동은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각 학문 분야의 구체적인 연구의 다양화가 시도되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학술지로서 <신앙과 학문>의 매년 4회 지속적인 출간과 '동역회' 회원들의 다양한 저서 발간, 그리고 학술대회와 연구 모임들의 지속은 크게 주목하지 않는 점이지만, 매우 의미 있고 핵심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석종준 '동역회' 구성원으로 오랫동안 함께 해 오시면서, 또 여러 역할을 직접 섬겨오신 산 증인들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가치와 보람을 느끼셨던 일, 반면에 가장 아쉬움이 남는 일에 대해서도 각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최태연 개인적으로는 40대에 '기학연' 실행위원회와 '기윤실' 문화전략위원회에 참여해서 거의 매달 열정적으로 참여한 일, 기독교 학문 연구결과를 <신앙과 학문>에 자주 투고하던 일, 근무하는 대학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고 다른 동료 교수들이 기독교 학문을 하도록 돕던 일이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 전공인 기독교철학과 기독교 문화 분야에서 좀 더 연구를 집중해서 좋은 책을 남기지 못한 점은 제일 아쉽습니다.

김태항 앞서 말씀드렸던,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을 성공적으로 지속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10여 년 전이라 하

더라도 이미 온라인 콘텐츠의 확산 추세가 예견되었고 ‘동역회’ 내부에서도 동영상 콘텐츠 보급의 중요성을 공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회분의 콘텐츠 제작에 그치면서 계속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역회’의 학술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교회나 단체를 찾아가서 기독교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물론 동역자 여러분이 무수히 강연과 토론에 참여했지만, 이는 대부분 개인 차원이기에 ‘동역회’ 차원에서는 체계화하고 발전시키지 못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조성표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통합입니다. 조직들이 대개 갈라지기는 쉬워도 합해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의 조직은 더욱 그렇습니다. 두 단체가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은 양측 모두 겸손한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고 리더십들이 서로 양보하여 이루어진 귀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된 후 노선의 차이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직도 많이 아쉽습니다.

박동열 실행위원장으로서 <월드뷰>의 공식적 분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독교 세계관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애보다 이념적 진영이 더 강하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반면 ‘동역회’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되는 일은 사회 어디에서도 만나기 힘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동역회’에서 만난 모든 분의 삶은 닳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역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보람되고 즐거운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종준 ‘동역회’가 앞으로 40년,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주어진 소명, 즉 그리스도인 지성 공동체로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계속 더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무엇에 더 집중하고 어떤 도전과 과제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보

시는지요.

최태연 앞으로 40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의 일차적인 과제는 기독교 학문을 각 영역에서 묵숨 걸고 진지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실천은 이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제대로 날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회주의 운동은 마르크스라는 걸출한 이론가가 나옴으로써 세계를 움직이게 되었죠.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사회운동가와 정치가로서 19세기 후반의 네덜란드 교회와 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나와서 먼저 신칼뱅주의 신학과 세계관의 이론을 정립했었지요.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치열한 미래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학문 연구가 필요해요. 그것을 각 영역의 현장과 연결해서 실천해야지요.

조성표 현재 우리 사회와 교회를 보면, 이념 갈등이 극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압축 성장을 하여 온 탓에 정신적인 면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성경보다 이념이 우선되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면서 느낀 대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확신으로, 성경에 기초하여 겸손한 자세와 화합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보며 나아가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태황 우선은 동역자 인적자원의 확대입니다.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학자 또는 연구자들이 우리 ‘동역회’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공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동역자 풀(pool)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온라인 네트워크와 AI 시대에 탈인간화의 기술적·사회문화적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혁을 맞아 기독교 세계

관에 기반한 학술 활동이 본질을 강화하면서도 사회 문화적 변혁을 주도해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학술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속 학문을 수행할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노력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영원한 숙제이자 선물일 것입니다.

박동열 이제 ‘동역회’ 1세대 분들이 학교에서 퇴임하셨고, 여러 모양으로 기독교 세계관적 삶을 정리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많은 자료와 삶의 흔적들을 모아놓은 자료관과 도서관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 ‘기독교 세계관’ 담론을 잘 전수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지요. 또한 이제 ‘동역회’는 장기적으로 존속을 위해 꼭 사무실을 구입해야 합니다. ‘동역회’ 사무실을 상황에 따라 이동하는 것은 안정적 사역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0주년을 기점으로 ‘동역회’ 사무실 구입 캠페인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역회’의 국제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한국 안에서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다보니, 국제적 이슈가 무엇인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외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역회’와 같은 단체는 어떤 곳인지 등에 대해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제 꼭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학회와 연구도 외국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학회도 국제학술대회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이주하고 이동하는 이 시기에 ‘동역회’의 국제화는 반드시 추진해 나갈 방향이지요.

석종준 ‘동역회’의 미래는 우리 교수님들처럼 순수한 열정과 헌신으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가치와 의미 및 그 고귀한 정신을 계속 붙들고 이어갈 젊은 세대의 참여와 동역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왜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교수님들께 초청의 말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최태연 10여 년 전 박동열 교수님과 그리스도인 대학 원생 모임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때가 생각나네요. 어떤 운동도 다음 세대 참여가 없이는 생명을 다하고 말지요. 많은 청년이 기독교나 한국 교회를 외면하거나 떠나는 현실 속에서 왜 기독교 세계관이 여전히 필요한지를 끈질기게 소개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한국 복음주의의 기독교에 희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무관심한 한국 복음주의의 기독교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지를 알기 쉽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몸소 보여주어야 하지요. 동시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참여자들은 복음주의의 진영 기독교가 강조하는 담론의 필요성과 기여를 인정해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여 이웃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사명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 운동가들이 영혼 구원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진정한 복음주의자가 함께 될 수 있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귀는 더 쉽게 열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합니다.

조성표 우리 세대는 30대 초반, 빠른 사람들은 20대 후반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자리를 잡으면 성경공부그룹도 운영하고, 각자 전공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나 창조론을 공부하며 전파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임한 교수님들은 대개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집안일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은 탓인지 이러한 사역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

은 전공 연구와 교육에도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교수들은 자기 전공에 갇혀서 보는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하면, 전공의 하부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와 주변 학문들을 함께 보게 되어서 자기 연구 영역의 역할과 한계를 알게 됩니다. 저는 회계학인데요,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통하여 경제학의 기초와 근본 가정과 기본 철학을 공부할 수 있어서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 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기독교 세계관 공부는 각 전공을 넘어서 융합적 시야를 크게 넓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박동열 차세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동역회' 운동의 지속을 위해 필수적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학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논점들과 도전들은 더 강하고 다양하게 다가올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세상 속에서 죄의 세력과 시대정신들과 새로운 우상들과 싸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새로운 영적 싸움을 감당할 그리스도인 지성인

들을 세우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필요불가결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역회'에서 가장 우선적 사업이 있다면 젊은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을 지원하고 세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황 기독교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살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성경을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들은 세상의 변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수용자'이면서 열정과 도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동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논리와 움직임을 생각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활동을 도전적으로 시도해 나아갈 때 자신과 사회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 세계관은 장신구나 취미활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존재론적 태도입니다. 물론, 청년들은 우리 지난 40년의 방식과 활동에 엄청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래 40년, 100년을 향해 기독교 세계관을 변혁시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FAITH & LIFE**

▼ 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성균관대), 주제 : 생태, 환경 그리고 교육(2019. 1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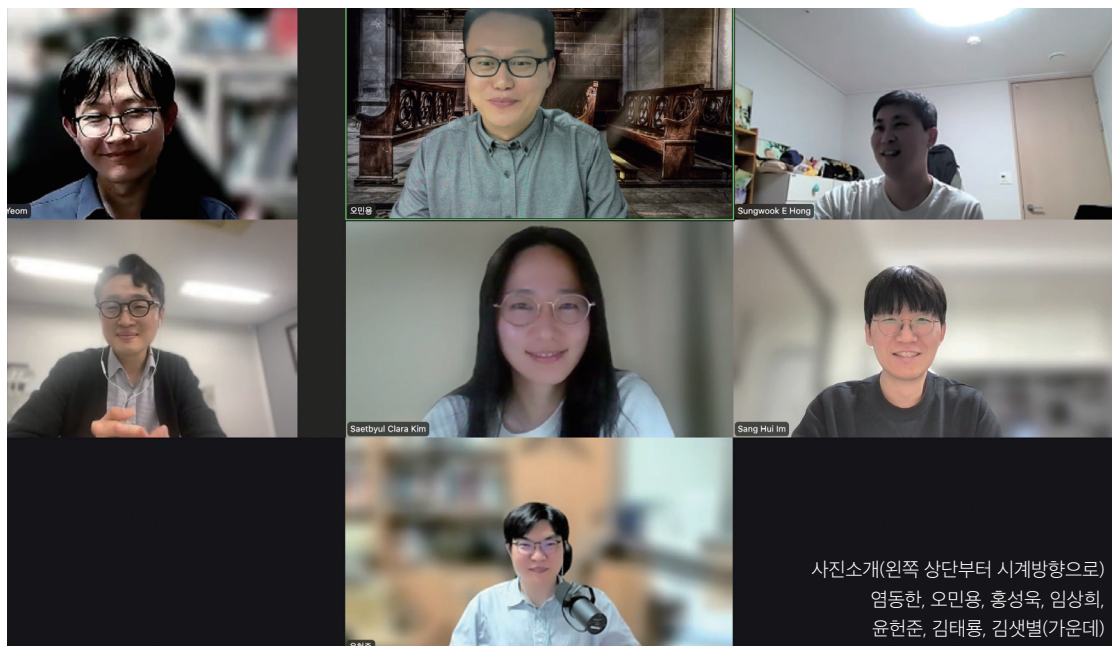


▲ 2008년 모임을 가진 '기독교학문연구소'와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두 단체 통합 준비위원회의 기념사진이다.



▲ 2009년 5월 송실대에서 있었던 춘계공동학술대회 및 통합감사예배 기념사진이다. 1984년부터 비슷한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공유하며 각각 활동해왔던 '기독교학문연구소'와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두 단체는 각각 총회에서 통합 결의했고, 2009년 11월 제1회 통합 총회를 개최(정관 및 이사회 확정)하고, 마침내 역사적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출범하였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년 : ‘나아갈 길에 대해서’ - 주니어 대담



대담자(주니어)

김셋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신앙과 삶> 편집위원)
김태룡 (경희대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정회원)
임상희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 정회원)
엄동한 (부산대 물리교육과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윤현준 (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총무)
홍성욱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카이스트 RACS 간사)

사회자

오민용 (한동대 법학부 강사, 전 기독교학문연구회 총무)

오민용 박사님들 안녕하세요. 2024년은 ‘동역회’가 지난 40년의 ‘걸어온 길’을 평가하고 앞으로 40년의 ‘걸어갈 길’을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이 자리는 소장 학자님들과 함께 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선 현재 소속기관과 연구 분야를 소개해 주시지요.

엄동한 저는 부산대 물리교육과에 있습니다. 전공은 이

론 물리학이고, 고전 및 양자 중력 이론이 주관심분야입니다. 특히 블랙홀과 초기 우주가 관심분야인데, 이 주제들은 정합적인 자연법칙이 무엇인지,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윤현준 2020년 9월부터 숭실대 기계공학부에 임용됐고요. 세부 전공은 응용역학이고, 박사 논문은 버려지

는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 구조 설계 최적화 연구를 합니다.

임상희 저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입자물리와 우주론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셋별 저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셋별입니다. 전공은 교육심리인데, 청소년의 사회정서 역량, 지역사회 봉사활동, ‘친사회성’과 ‘사회기여의식’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형성되고 계발될 수 있는지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한국천문연구원의 이론천문센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주론’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크기와 내부 구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원이나 기본 법칙 등을 알아내는 연구입니다.

김태룡 경희대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 교수로 있고,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에 선정되어 5년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제명은 ‘성서 스토리텔링 VR 콘텐츠 기획을 위한 스토리 모델 연구’입니다. VR 콘텐츠에 성경의 이야기를 접목할 시 적용할 수 있는 기획론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연구소에서 한류 문화 및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연구를 하며, 연구방법론이나 이론들을 기독교 세계관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민용 박사님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동역회’ 및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직간접적으로 관계와 섬김을 이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동안 각자 어떤 계기와 관계로 활동을 하셨는지요?

염동한 저는 대학 시절 카이스트의 RACS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공인 물리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으려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 중

‘동역회’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 석종준 목사님의 소개로 다시 ‘동역회’ 활동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소장 학자들과의 귀한 만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현준 학부 때,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IVP) 등 로널드 사이더(Ronald Sider)의 책들을 접하면서 ‘사회 참여를 위한 복음주의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적 렌즈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학문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게 됐지요. ‘동역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2018년입니다. 현재는 실행위원, 〈신앙과 삶〉 편집위원,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임상희 카이스트 학부 시절, 기독교학생회(IVF)를 통해 처음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여러 모양으로 활동해오신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의 강의와 서적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고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는 RACS에서 활동하며 과학과 신앙의 조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동역회’ 분들과 교류를 통해 폭넓은 관점을 접하고 나름의 시각을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역회’에서의 교류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셋별 저는 2016년도 ‘기학연’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신 웨슬리(Wesley Wentworth) 선교사님의 제안으로 교육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기독교 세계관 독서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유학가기 전까지 약 2년간 매주 모임을 이어오면서, ‘동역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는 소장 학자 모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손봉호 교수님과 소장 학자 대담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소장 학자 온라인 독서 모임, 지난 춘계 학술대회에서 소장 학자 세션 발표자로 함께 하였습니다.

홍성욱 저는 카이스트대학원에 입학한 2004년부터 약 7년 동안 RACS라는 기독교 세계관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RACS는 창조과학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동아리로 시작했다가, 제가 막 가입했을 때는 ‘지적설계’ 운동을 공부하고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아리가 되어 있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지적설계를 연구에 한계를 느끼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던 중에 현재는 기독교 세계관 관련 다양한 논의를 공부하는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동역회’는 대학원 시절부터 알았고, 지금까지 간간히 ‘기학연’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여러 사정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RACS 간사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김태룡 소속기관 소장님이신 안승범 교수님(경희대 국문과, ‘동역회’ 실행위원)의 제안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 교수님은 박사과정 재학 중이던 2015년에 지도교수였는데, CCM을 둘러싼 인식과 담론의 변화를 연구해 보자고 제안하셨고, 그 논문을 <신앙과 학문> 64호에 게재하면서 ‘동역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성경을 소재로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과 관련된 논문을 포함하여 5편을 <신앙과 학문>에 게재하였습니다. 또 ‘기학연’ 학술대회의 발표자와 기관지 <신앙과 삶>의 필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오민용 ‘동역회’는 지난 40년 동안, ‘신앙과 학문’, ‘신앙과 삶’, ‘영성과 지성’의 이원화를 극복하려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해 왔는데요. 박사님들이 그동안 ‘동역회’ 또는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지켜보신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김태룡 신학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학문 분야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망하려는 시도를 일찍부터 해 주셨다는 점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러한 학술의 장이 있었기에 저도 전공과 기독교 세계관 사이에 ‘간 학문적’ 시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대 이슈들

에 기독교적 대답을 모색하는 시도가 큰 도전이 됩니다. 특히 작년 6월 배재대 학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챗GPT’를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동역회’가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응답을 모색해 제시해주시면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개인적으로 기독교 문화 콘텐츠 연구에 대한 저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신 분들이 대부분 ‘동역회’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신국원, 강진구, 이경직, 최태연, 추태화 등 선생님들께서 쓰신 글을 통해 공부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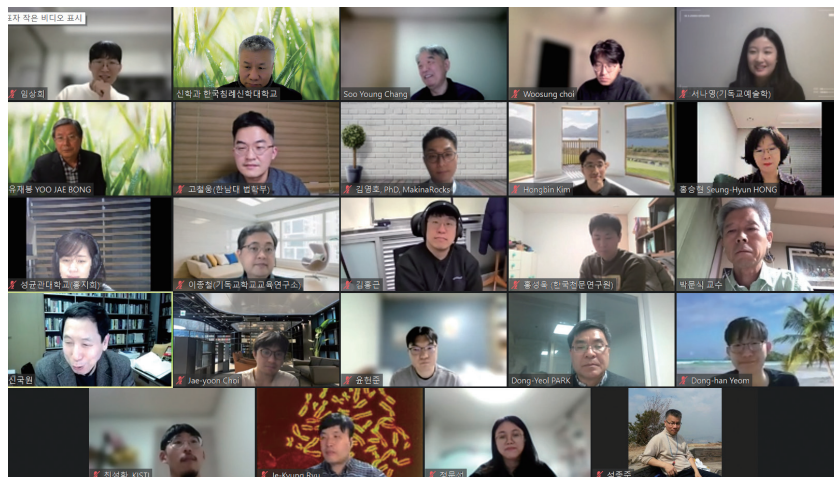
염동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신앙과 학문을 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점입니다. 물론 신앙과 학문 사이에는 여전히 다양한 긴장이 존재하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근본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답’을 제공했느냐보다, 그 질문을 고민하는 지식인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 각자 자리에서 지적으로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학자들에게 롤모델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윤현준 본래 기독교 세계관은 서구 세속주의에 대항하여 기독교 신앙을 총체적으로 변증하려는 인식 체계로 소개됐는데요. 제가 느꼈던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복음주의가 사회 참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각 시대의 영향을 받고, 시대 문제를 안고 사는 존재인데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우리가 자기 시대에 “어떻게 사유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더 나은 성경적 해법을 찾기 위해 계속 세상과 소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거나, 전체주의적이고 억압적인 형태의 종교적 권위로 배제와 혐오를 부추기는데 오용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셋별 어느 모임이든, 특정 사안에 대한 접근, 진행 방식,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 등 여러 측면에서 이견과 긴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 역시 신앙과 삶 혹은 신앙과 학문, 영성과 지성의 조화라는 기초하에 시작하였지만, 각 문제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에서, ‘동역회’ 선배들이 40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이끌어 오신 것에 우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앞섭니다. 그동안 각자의 목소리와 의견과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많은 이들을 품으면서, 정제되고 합의된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자 고심하고 애쓰셨을 거란 생각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사회적 소수자인 과부와 어린이, 세리와 나병 환자, 숨어 지내다시피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이야기가 건강하고 부드럽게 오고 갈 수 있는 역동적인 모임이 되길 기대합니다.

홍성욱 그동안 ‘동역회’의 활동에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학술대회에 몇 번 참여하면서 느꼈던 바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초창기 원로 및 시니어들과 최근 유입된 소장 학자들 사이에는 세대 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시니어 분들은 기독교 세계관 자체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높고, 총론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그때그때 존재하는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 소장 학자들은 기독교 세계관 자체보다는 특정한 문제, 혹은 특정한 학문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공부에서 시



코로나19 시기에 있었던 기독교학문연구회 소장학자 온라인(ZOOM) 모임

작해서 특정 문제로 넘어간다고보다, 특정 문제나 학문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다가 기독교 세계관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오민용 그렇다면 그동안 ‘동역회’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다양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함께 해 오시면서 느꼈던 가치와 보람, 반면에 아쉬움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김셋별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며 느낀 ‘동역회’의 장점은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신앙을 접목하여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삶, 구원, 창조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신앙고백을 공유하면서, 배움의 이력이나 경험 등 삶의 궤적의 다양함에서 오는 여러 관점의 의견과 이야기들을 풍성히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동역회’의 큰 가치입니다. 저는 지난 8월, ‘기독교학원생북콘서트’ 사회자로 섬기면서 난생처음 ‘종말론’에 대해 배우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참여한 선생님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한자리에서 듣고 고민하며, ‘동역회’

사역의 가치를 몸소 느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기회들이 소중한 만큼, 참여자들의 관심사와 이력과 배경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통로나 채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학술대회, 매거진, 북콘서트 등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할 ‘아카이브’가 마련된다면, 더 많은 소모임 나눔, 공동 연구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현준 그리스도인으로 학문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내재한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가져야 할 학문적 신실함을 일깨워 줍니다. 영성과 지성,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통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속화의 거센 물결에 대해 예언자적 반(反)시대성으로 저항하는 사명을 일깨워 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감사할 따름이지요. 다만 그 일깨움이 과연 한국교회의 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너무 지성인 중심의 운동으로만 자리매김했다고나 할까요?

홍성욱 좋은 점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점이겠죠. 대학원 시절 RACS 활동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학문하는 것에 공격을 받을 때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고, 고민이 심할 때는 과학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고민이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니지만, 동료들이 있었기에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며, 지금까지 학문의 길을 계속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동역회’에서 무언가 새롭고 시의적절한 연구결과를 계속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우선 우주론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기독교적인 함의가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런 연구는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함의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동역회’ 학술대회, 〈신앙과 학문〉 논문 안내를 볼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분들께서는 ‘동역회’가 단순히 연구성과만 발표하는 모임이 아니라, 현 사회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우주론을 연구하기에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설령 참여해도 기독교 세계관을 조금 공부한 수준이므로, 제 전문성을 전혀 살리지 못할 겁니다.

김태룡 가장 보람은 저의 연구영역에서 축적해 온 지식을 기독교 세계관에 접목하고, 그것을 연구물로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적 세계관이 기반한 연구여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연계될 때 느껴지는 보람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동시에 신앙인과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쉬운 점은 저와 유사한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선교 및 성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대중문화 혹은 문화콘텐츠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상희 개인적으로 과학과 신앙의 조화 문제에 ‘동역회’와 가장 많은 접촉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구체적 문제의 해결점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관점들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나름의 만족스러운 답변을 찾고 동일한 고민을 하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보람입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답을 찾으면서부터는 ‘동역회’ 활동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느꼈던 기독교 세

계관 운동이라는 것은 너무 학문적이고 어렵거나 반대로 너무 단순화되거나 주관적이어서, 실상 별로 알맹이가 없고 현실을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에는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졌던 점입니다.

오민용 ‘동역회’가 앞으로도 40년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이원화 극복을 돕는 소명을 감당하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플랫폼 역할을 계속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도전과 과제의 해결이 시급하고, 또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요.

김셋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지속과 변화를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저에게 가장 와닿는 위기의식은 과연 몇이나 되는 청년과 미래세대 주역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 운동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가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갈수록 ‘나’의 삶이 중요해지고 ‘나’를 우상시하는 사회 풍조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누군가에게는 잉여시간과 여유 있는 자들의 사치 혹은 배운 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속하는 경위는 다양할 수 있지만, 우선 그 안에서 화합과 사랑, 유익과 교류가 건강하게 경험될 때, 그 일부가 되고 싶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역회’가 회원들의 영적, 정신적, 지적 성장과 유익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역회’ 안에서 회원들이 자정 과정을 거치고 긍정적 자극과 도전을 경험하며, 새로운 발견과 융합적 사고의 과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염동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낮은 출산율’, ‘수도권 집중 현상’, ‘의대 열풍’,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자녀를 낳는 것은 비

합리적 행위입니다. 자기 전공을 살리는 직업을 가지려면 서울로 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의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개개인이 경제적 의미에서 합리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 총체로서의 한국 사회는 ‘비합리적’이 되었지요. 기독교 세계관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요즘 하는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지금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에 어떤 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기보다,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위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라고 보일지도 모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현준 저는 19세기부터 이어온 기독교 세계관 렌즈를 바꾸어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렌즈로만 시대의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세계관의 담론을 성속(聖俗) 이원론 극복이라는 방향으로만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오히려 세속화 문제를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신앙에 기반한 문화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가르침은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 적용되면, 세상에서 그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이원론 극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신앙을 변형신앙으로 바꾸고, 세속화를 ‘삶의 예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을 심히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 캠퍼스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도 공적 예배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성례전이 약화된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면들이 없는지 다시 되짚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욱 ‘동역회’가 우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플랫폼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장 학자 모임을 통해 이 운동에 새로운 세대를 계속 참여시키고 있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세대는 대체로 특정 문제 또는 학문에서 시작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경우가 많으므로, 기독교 세계관의 총론적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반면, ‘동역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 이원화 극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한다면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 들어본 분들은 1/100도 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거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세계관 공부 는 지적 유희 이상을 벗어나기 어렵고, 심지어는 지적 자괴감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룡 새로운 학문적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독교학문의 영역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동역회’에서 시대적 이슈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며 학술대회를 여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동역회’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 함께 계속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을 시도하고 그것을 논문과 학술대회를 통해 공유해주신다면, 그 자체로 해당 분야의 학자들이 ‘동역회’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 체감은 기독교학계가 일반 학문계의 트렌드보다 한 박자 늦게 반응한다고 느낍니다. 특히 제가 연구하는 문화콘텐츠학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백석대학교 BK21팀이 기독교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고, 작년에는 기독교 문화콘텐츠 전공도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라는 거대

한 대화의 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존재감을 확보하는 일과도 관련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더 많아져서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학술 담론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상희 제 경험으로는 결국 각자 문제의식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추구하게끔 독려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필요를 느끼는 현실의 문제들이 다를 텐데요. 이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줄 수 있는 ‘답’이 존재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 내에 다양한 의견과 관점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민용 모든 단체나 운동의 미래는 그 정신을 이어갈 다음 세대, 특히 청년들과 소장 학자들의 자속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및 동역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역회’가 다음 세대의 참여와 동역을 위해 어떤 노력과 상황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윤헌준 세상을 기독교적 렌즈로 바라봄으로써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잡는다고 했을 때, 그 렌즈 자체는 성경의 가르침과 더불어 현대성의 영향도 받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직면한 저출산과 비혼주의 문제는 고용 불안정성, 높은 주거비, 교육비 부담 등 매우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단순히 개인의 신앙 부족이나 세속적 가치관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원론 극복을 위해 출발한 기독교 세계관이 시대의 감수성을 잃어버린다면, 오히려 역으로 기독교를 계도화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시대의 변화를 아우르는 성숙한 합의와 균형점을 설정하는 새로운 감각이 우리 ‘동역회’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상희 각 개인의 능동적인 참여는 역시 그 사람의 바람과 필요에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

가 무의식중이라도 느끼는 필요와 문제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섿별 기독교대학원생 북콘서트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몹시 반가웠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통해 이성적이고 학술적 논의에서의 신앙적 접점을 적극적으로 찾고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 특히 북콘서트나 독서 모임의 활성화를 ‘동역회’가 지원하고, ‘기학연’ 등에도 이들을 초청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멘토링, 진로 콘서트, 찾아가는 북콘서트의 플랫폼을 빌려 ‘동역회’ 활동을 소개하고, 선배들과의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증에도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아동·청소년과 청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비유의 방식 등을 활용하여 젊은 세대 교육을 확장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욱 최근 RACS 간사를 하면서 느낀 바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하는 지체가 많아지려면, 우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젊은 세대의 복음화율이 5%가 채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숫자이니,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하는 젊은이 비율은 더 적겠지요. 게다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쉽게 늘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먹고사는 문제 이상을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가 되지 않고, ‘나 자신이 먹고사는 문제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더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

의 수가 더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룡 사실 다음 세대로의 확장은 ‘동역회’ 외에도 모든 학회의 주된 고민거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인문학 분야의 경우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모든 대학들이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장 학자들이 전임교원이나 정규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도 함께 좁아지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원생이나 저와 같은 비전임 자리에 있는 연구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용에 도움이 될 실적이나 당장 이득을 줄 수 있는 특강 등을 우선시하게 되고 ‘동역회’ 활동은 후 순위로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해결책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의 안정적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염동한 먼저 이전 세대가 이룩한 ‘동역회’의 모멘텀(momentum)을 잘 유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역회’의 학회, 학술지, 학문적 활동 등이 유지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장 학자들의 관심을 좀 더 모으고자 한다면, 소장 학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창의적인 활동들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공유하는 타 분야의 연구자들과 저의 전공 분야를 접목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활동은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치 있고 재미있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는 곳이라면, 에너지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이런 공동 연구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기독교 세계관을 공유하는 분들과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FAITH & LIFE

나의 세계관은 공사 중

김지원 (백석대 보건복지대학원장 / 동역회 실행위원장)



2023년, 일 년간 교수직을 휴직했다. 연구년도 질병 휴직도 아닌 일본으로 발령을 받은 아내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아내 요청 휴직’이랄까. 도쿄로 발령받은 아내는 일본 생활에 적응하는 일 년 동안 함께하길 원했다. 방학이 되면 바로 일본에 가겠다고 했지만, 아내의 대답은 “No”. 조심스럽게 학교에 휴직 신청 이야기를 꺼냈다. 이러한 이유로 휴직 신청을 하면 당연히 반려되지 않을까? 그런데 나의 예상 이 빗나갔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당일로 휴직 허가를 받았다. ‘히라가나’도 모르는 나의 일본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한일 간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일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일본이 좋다면 여행 다니고, 일본 사람들 친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역사적, 정치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세계관이 변화된 것이다. 백석대학교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

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기독교 학문 활성화를 위한 일을 하면서 갖게 된 유익 중의 하나는 바로 일관된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물론 내가 늘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나의 세계관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 다시 말해, 나의 입장, 내가 속한 공동체, 민족, 국가에 대한 생각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할 때 왜곡된 나의 세계관을 깨닫고 변화시켜가는 중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진정한 만남을 통해 형성된다.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사랑을 나누고, 좋은 책을 통해 저자와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 경외감을 느끼는 순간 형성된다. 일 년간 일본에 있으며 이런 만남을 가졌다. 일본 치바현 글로리아선교신학교에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 기도로 섬기는 임진하 선교사를 만났다. 임 선교사의 요청으로 신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신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말씀에 목말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다. 메이지카루인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서정민 교수를 만나 일본선교와 일본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일본교회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쓰지 목사와 윤인중 선교사가 섬기는 동경산돌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헌신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외 찬양 사역으로 섬기는 공민 선교사, CGN Japan의 박두진 국장 등을 만나며 일본을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해외로 선교를 가기만 했었는데, 일본에 있는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온 선교팀을 만나 그들의 선교사역을 돕는 색다른 경험도 했다.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단기선교를 몇 차례 다녀왔지만, 일본선교에 대한 나의 입장은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일본선교를 해야 하는가'였다.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였다. 2013년부터 '동역회' 일에 참여하며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런 저런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왜곡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스티븐 월킨스와 마크 샌포드가 <은밀한 세계관>에서 언급했듯이, 삶과 문화에 녹아있는 은밀한 세계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흔히 세상을 보는 안경으로 비유하지만 나에게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자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나의 왜곡된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변화의 길로 인도하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

도쿄에 머물며 십여 차례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대학에서 기독교 학문 활성화를 위한 부서의 일을 하며 신학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껴 신학대학원에 다녔는데, 일본에서 설교자로 세워주신 것이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말씀과 씨

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자들이 말씀을 준비하며 받는 은혜가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일본에서 일 년의 삶은 내 인생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는 자연스럽게 일본 복음화를 위해 섬기는 사역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목사안수를 받고 동경산돌교회의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다.

새로운 섬김의 자리도 주어졌다. 9월부터 보건복지대학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 일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기독교 학문 활성화를 위해 부르신 자리라 생각한다. 올해 초부터 '동역회'의 실행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동역회 4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며 오랜 시간 섬겨오신 '동역회'의 한 분 한 분이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섬겨주신 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동역회'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년,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세계관을 발견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역회'로 성장하길 기도한다. 우리의 세계관은 공사 중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지원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이다. 연세대학교 재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부터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섬기며 의학분과장, 실행위원, 학술부회장 등으로 섬겨왔다. 일본 동경산돌교회 협력 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한기돈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부 박사과정)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히브리서 12장 28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삶 속에서 매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부딪히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나의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 그러다 중·고등학교 즈음 진화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오히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나 공부하면 할수록 수학과 과학도 결국에는 공리와 같이 이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내가 믿어야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정

말 만나고 싶는데, 제 능력으로는 당신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 학교에 와 있기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의심이 너무 많사오니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아니시라면 아무런 일도 없게 하셔서 다른 진리의 종교를 찾게 하소서.” 이 기도 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고민의 답을 주셨고 수많은 증거를 주셨다.

그중 나에게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거듭남의 은혜였다. 나는 그전까지 천국과 지옥은 아이들 동화어나 나오는 헛된 생각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 속에서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새 생명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감옥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처음으로 감옥 밖으로 나와 빛을 본 느낌이었다. 또한, 이것이 천국이며 이 생명은 다시는 끝나지 않을 생명인 것을 알게 되었다. 영원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과 함께 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캠퍼스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 시대 청년들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그냥 모두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 허무하게 죽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들과 같

이 생각하며 살아왔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 분과 함께 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이다. 이것이 너무 귀하기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매었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영원한 천국을 경험했기에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다. 만약,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한시적인 것들에 목매지 않는다면, 또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천국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을 전도하다 보면 과학에 대한 변론과 논쟁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논쟁이 끝나면 드는 생각이 있다. 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저 친구가 주님을 알게 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결국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데 이 친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 끝에 나는 그 답이 내 삶을 통해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등장할 때 비로소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다. 마치 골리앗의 갑옷처럼 그 세계관은 너무 강력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리앗의 갑옷이 아니라 골리앗이 숨쉬기 위해 내놓고 있는 머리의 이마를 명중시킴으로 무너뜨리셨다. 쓰러뜨린 무기도 골리앗과 같은 칼

과 창이 아닌 다윗에게 익숙했던 물맷돌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완고해 보이지만 그 안에 골리앗의 머리처럼 살기 위해 내놓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깊은 공허함과 허무감일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단련된 우리 삶을 통해 저들의 이마 속의 세계관을 부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물맷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일 것이다.

쉽지는 않다. 날마다 전쟁이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낙심될 일이 세상에서 불쑥불쑥 등장한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영원한 것이 있으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망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짧은 글을 통해 우리 모두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한기돈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부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다. 요즘 하는 연구는 전 지구 지하수 모델에 관한 것이다. 또한 현재 카이스트 기독교 세계관 동아리 RACS 회장도 맡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통해 참된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주님 향한 사랑고백

이성경 (한동대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학부생)



나는 기독교 대안학교 GVCS(글로벌선진학교)에서 자랐다. 돌아보면 다른 학교 친구들에 비해 전공하고 싶은 것과 미래에 꿈꾸는 모습에 대해 기도하며 찾아볼 시간이 많았다.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기도제목과 비전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주셨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나아가며 기도와 상담을 부탁드릴 때도 어떻게든 시간을 맞추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우리의 또 다른 부모님이라는 말에 동의가 될 만큼 학생들의 일을 선생님의 일처럼 여겨주셨다.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전력을 다해주셨던 우리 선생님들의 정성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통로가 되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어른들이 있다는 든든함을 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믿음의 선생님들께 여전히 늘 감사하다.

그렇게 은혜로 나아갔던 입시 후 입학 등록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고, 나는 한동대학교를 선택했다. 1학년 동안 학생들이 기도하며 자유롭게 전공을 택하고 2학년부터 같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전공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선택의 이유였다.

대학에서의 첫 1년을 보내고 나는 전하고자 하는 메

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 전공을 선택했다. 전공을 정했으니, 하나님의 꿈이라는 중요한 큰 틀을 잡고서, 학생 개인으로서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1년간 휴학을 한 채 전공 너머의 비전을 찾아가고 있다. 전공선택 당시 나는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이 고교 시절 전공 수업으로 들던, 온전히 생각을 나만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조형미술의 일부가 되리라 생각했으나, 디자인은 그보다 더 실용적이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점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의 상상 속 모습과 달랐던 디자인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나는 어떻게 이 전공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물음 속에, 기도하며 확실한 목적과 비전을 다시 세워야 했다.

“주님, 1년간의 휴학을 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에 저는 하나님과 같이 꿈꾸고 싶어요. 명확히 주님과 함께 꿈꾸고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말뿐만이 아닌 사랑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휴학을 시작한 나에게 주님은 PLI 스터디 클럽을 통해 이론과 삶으로의 적용을 포괄한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시키셨다. 나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줄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술작품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작가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 내려면 그 중심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담긴다. 내 메시지는 복음, 즉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요즈음 큰 주목을 받는 대중예술(엔터테인먼트, AnR), 그 외에도 무용, 미술, 음악, 영상 등의 모든 예술 분야에서의 설득력 있는 예술작품들의 탄탄함은 바로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가지고 있는 표현력과 탄탄한 세계관에서 나온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갈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울 수 있다니, 절호의 기회였다.

배운 세계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 매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기독교대학원생 북 콘서트'를 통해,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통해, 현재 함께하고 있는 영감(靈感) 모임을 통해, GVCS 동문 기도회를 통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세계관으로 대화하고, 그 안에서 주제를 잡고 심도있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확신은 더해져 갔다. 하나의 사례로, 이번 여름에 갔던 일본 선교에서 함께 해주셨던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들려진 "주님이 나아가자고 하실 때,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실 때 손을 들고 함께 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예, 나의 입술로 주님께 "아멘, 믿습니다."라고 응답하게 하셨다.

현재 나는 주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노력에 대해 고민하며 시간을 보낸다. 주님의 일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에 한 알의 밀알이 되길 소망하는 주님의 종과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3D 스튜디오에 열심히 참여하고, GVCS 동문회 디자인팀장으로 팀원들과 함께 행사의 시각요소들을 디자인하는 등 실무적인 경험을 쌓았다. 이후의 다양한 사람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나의 개인 작업을 통해 예술적 표현능력을 길러가는 노력도 쉬지 않는다. 이런 노력들 가운데 늘 기도함으로 주님을 중심에 두면, 모두 나의 표현물들로 주님을 나타내는 한 걸음이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대를 거둬들수록 정보들이 쌓이고 쌓인다. 정보를 얻기는 쉬워도 그 안에서 뜻을 하나로 모아 확신을 갖기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나는 꼭 주님만의 지하고 찬양하며 가고 싶다.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시 116:1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시 146:2) 아멘. **FAITH & LIFE**



글쓴이 이성경



한동대학교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학부생으로서,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을 복수 전공하고 있다. 예술을 통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목표는 주님께서 주신 창조성과 개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고성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지만, 미션스쿨이었던 고등학교에서 만난 은사님 덕분에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는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학부과정에서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했고, 대한항공에서 3년간 근무했다. 대한항공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일했던 부서는 부천에 있는 엔진공장이었다. 내가 대한항공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단순했는데, 공군에서 복무할 때 공수기로 '치누크 헬기'(HH-47)를 한 번 탑승해본 이후 비행체에 매료되어 이쪽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력을 이야기하면, 왜 대한항공에서 좋아하던 항공기를 놔두고 정치외교학부에 왔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간단히 설명하면,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 대학원에 일단 지원해봤다. 그런데 감사하면서라도 의아하게도 합격했고 마침 재직 3년 차라서 휴직도 가능했기에 인도하심이라고 느끼며 입학했다.

석사과정으로 들어와 첫 주에 느꼈던 감정은 불안감

과 당혹스러움이었다. 과제로 읽어야 할 책도 너무 어렵고 동료 학생들은 글을 너무 잘 써서, 대학원에 갈 못 온 것 같았다. 이대로 회사에 돌아가자니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았다. 마침 이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려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한 주간 보낼 수 있었다. 집에 있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그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났다. 죽고 싶은 마음에까지 이르게 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수치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대신 담당하셨다는 생각을 하니, 다시 진정이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었다.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나니 예수님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매주 학교에서 노방전도를 나갔다. 감사하게 주변 학우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나와 같이 불안과 두려움에 있던 학우에게 신앙 상담을 해 주는 가운데 그 학우에게 갑자기 평안함이 임하는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서기연(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의원 회의에 선교단체 대표 자격으로 매달 참석하고 있었는데, 거리에 대자보 형식으로 전도지를 부착하자는 안건을 낼 정도로 열심이 있었다. 이 안건은 통과

되었으나 대자보라는 형식이 다소 과격한(?) 표현방식으로 여겨졌기에 집행이 보류가 되었고, 1년 정도 후 마침내 중앙도서관 터널에 '서기연'의 지난 사역을 설명하는 벽보와 함께 사역 취지문을 게시하는 형태로 반영되었다.

2023년 9월은 석사학위 프로포절(논문계획서)을 앞두고 준비된 것이 없다는 생각에 황망한 마음이었다. 여러 사람을 돕고 다니고 사역을 열심히 하느라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 원망스럽기도 하고, 지난 시간을 잘못 보냈다는 생각에 후회가 되기도 했다. 그 당시 친하게 지내던 한 선배의 강권으로 지도교수님께 간곡히 도움을 구하는 메일을 보낼 수 있었다. 추석 기간, 교수님의 집중적인 지도로 '프로포절'이 통과되었고, 윤리심의위원회(IRB)에 제출한 연구계획서도 이례적으로 한주 만에 통과되어 정말 감사했다. 윤리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것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한 분, 공무원 한 분, 전문가 한 분의 인터뷰 내용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중 두 분께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린 적이 없어 인터뷰가 잡힐지조차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기도하며 연락처를 구해서 전화를 드렸고, 극적으로 인터뷰가 잡혀 빠른 속도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준비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포절과 드래프트(논문초고) 제출까지 한 학기 만에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석사학위를 마친 후, 나는 휴직 상태로 남겨두었던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직장을 퇴직하니 황량한 캠퍼스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어쩌면 내가 의지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수입이 보장된 직장이었다

것 같았다. 마음이 가난해져 서울대 기독교수회에서 주관하는 '수요열린예배'도 매주 나가고, 석종준 선교사님을 통해 알게 된 '기독교대학원생 북클럽'에도 꾸준히 참석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 그 무렵 모임에 나오는 이유를 묻는 분들께 말씀드리느라 제 상황에 해당하는 말씀이었다.

내 마음의 가난함은 직장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아서라는 것을 믿은 후에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은 후에야 마음이 부요해질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에 있는 것임을 느낀다.

지금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하는 나의 연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녹아있는 그 경륜을 생각도 해보게 된다. 배우면서 서구 문명의 기초에 기독교가 있고, 버젓이 드러나진 않더라도 밑바닥에 잔잔히 깔려있는 그 영향력을 보게 된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문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선용하실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길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고성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하고 대한항공에서 3년 동안 직장생활을 경험했다. 2022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2024년 졸업과 동시에 같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현재 일산에 있는 창대교회에 출석 중이고,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 북클럽' 멤버이며, 한 선교단체의 대표로도 섬기고 있다.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간다는 것

남아름 (서울대학교 수의대 박사후연구원)



내가 받는 난감한 질문 중 하나는 “너는 모태신앙이야?”이다. 부모님 세대부터 신앙이 이어져 내려와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나가고, 기도를 해봤으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자란 것이 모태신앙이라면 나는 모태신앙이다. 하지만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가며, 가족 구성원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일성수는 기본으로 여기는 것이 모태신앙이라면 나는 아니었다. 물론 부모님이 계셨기에 교회에 자연스레 발을 들였고,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도 결국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왔기 때문에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이기는 경험을 한 적은 거의 없이 가족 구성원이 모두 선데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 아직도 나의 꿈은 가족들과 모이면 당연하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찬양이 자연스레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바라는 나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그저 발로만 교회를 다니던 대학원생에 지나지 않았다. 나에게서는 크게 세 번의 신앙 전환점이 있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나갔던 신앙의 1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 신앙의 2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신앙의 3기다.

먼저 신앙의 2기는 2019년 신년을 맞이해 갑자기 성경 일독을 작성하고 연구실 사람들과 QT 모임을 시작한 해이다. 올빼미형 인간이었던 나는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하여 연구실의 믿음의 사람들과 4년 동안 매일 아침 QT 나눔을 하였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은 마치 연애 초기에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기 같았다. 항상 기분 좋은 궁금함으로 넘쳤고, 매일매일 QT 나눔을 하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오죽하면 QT 책에 있는 글은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전부 읽었던 것 같다. 지금 이 글을 적으며 떠올려보니, 내 의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QT 모임에 나를 초청해준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매일 말씀을 접하는 삶을 살아가며 처음엔 마냥 하루하루가 신나고 감사로 넘쳤지만, 어느 순간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있었다. 목표로 했던 박사 졸업은 무한정 연기되는 와중에 연구실에 불이 나서 한동안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기도 있었다. 연구가 너무 재미있어 박사과정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나는 졸업에 쫓겨 연구를 즐기기보다는 ‘빨리빨리’라는 조급함으로 논문을 마무리하며, 연구자로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내 삶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와는 명을 지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주님.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다 이뤄주신다면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 하시고, 때로는 무한정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이 이해되지 않았다. 아마도 '말씀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무지하고 경험이 없던 나의 모습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 2021년 1월 1일, 새해 다짐 기도를 하다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 되기'를 올해 표어로 정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이때 나의 신앙의 3기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때는 "나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라고 다짐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나는 이 시기에 삶의 많은 부분, 예를 들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 졸업을 준비하는 것,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가족 간의 갈등 등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음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 말씀을 주시는 줄 알았다. 그렇게 2021년이 끝나갈 때쯤, 오랜 기간 교제 해오던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포함해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거의 눈앞에 보이던 졸업 역시 좌절되었다. 참 많이 울기도 했고, 처음으로 새벽기도를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기이다.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였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응답받는 한 해였다. 그 후로 매년 새해 첫날이면 나는 '올해의 기도 제목'을 정한다.

올해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라는 말씀을 모티브로 하여,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가기'가 나의 기도 제목이다. 박사 졸업 이후, 같은 연구실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포

도나무이신 하나님께 꼭 붙어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열릴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내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1:21)라는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셨다. 이 말씀을 통해, 박사과정 때 해왔던 '반려견-사람' 비교의학 연구와 유전체 분석 기술, 어릴 적부터 키워오던 동물에 대한 호기심과 사랑 등이 다음 같은 소명으로 이어졌다. 즉, "동물들의 각기 다른 다양한 능력들을 탐구하고, 멸종위기 동물들의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특정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소명이었다. 아울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의 경이로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잘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올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곳에서 첫발을 내 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곳에서도 물론 헤매고 좌절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부지 중에도 늘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어찌 보면 무모할 수도 있는 이 길을 걸어보려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내 기도를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FAITH & LIFE**



✍ 글쓴이 알아보기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수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교내 수요열린예배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다. 현재 반려견과 사람의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암 발병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장차 이 연구의 배경을 다양한 동물로 넓혀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꿈이다.

20세기 최고의 세계관 대결

-맷 브라운 감독의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2024)-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C.S.루이스가 프로이트를 만난다면

영화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Freud's Last Session, 2024)은 심리학자 프로이트와 기독교 변증가인 C. S. 루이스와의 만남과 대화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1939년 9월 3일, C. S. 루이스(매튜 구드)는 프로이트(앤서니 홉킨스)의 초대를 받아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당시 그가 살고 있던 런던의 집을 방문한다. 도착 전 거리에서 만난 프로이트의 딸 안나(리브 리사 프리에스)가 루이스에게 건투를 빌 정도이니 관객만 없었을 뿐이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벌이는 세기의 대결을 기대하게 만든다.

물론 이 만남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 그러나 만일 루이스가 프로이트를 만났다면 프로이트가 죽기 전 영국에서 살았던 1938년 6월과 그가 세상을 떠난 1939년 9월 26일 그 사이가 될 것이다. 다만 꼼꼼하게 일상을 기록했던 프로이트의 일기에 따르면, 옥스퍼드의 젊은 교수 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한 줄의 기록이 그나마 역사적 만남의 가능성을 여는 단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프로이트의 나이는 83세였고 루이스는 41세였다. 한 세대의 차이가 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책과 명성을 통해 사전적 이해는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루이스는 자신의 책 <순례자의 귀향>(Pilgrim's Re-

gress, 1933)에서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풍자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는 지그스문트(Sigmund)가 있는데 이는 프로이트의 본명이기도 하다. <순례자의 귀향>은 영화에도 등장한다. 프로이트는 루이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책을 한 권 주머니에 넣어 준다.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열어보지 말라는 말과 함께 준 책을 루이스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꺼내 보는데 바로 그가 쓴 <순례자의 귀향>이었다. 프로이트의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프로이트가 평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다소 경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까닭에, 그리스도인이었던 루이스를 대하고 또한 그의 책을 선물로 준비한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것은 루이스의 기독교 신앙이 문학적이며 변증적으로 논술되는 일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암묵적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루이스의 뛰어난 문학적 상상력과 이성적인 변증 능력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프로이트로서는 루이스가 환자가 아닌 대화 상대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상상과 이에 따른 세계관의 충

돌을 처음으로 저술한 사람은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인 아멘드 M. 니콜라이(Armand M. Nicholi Jr)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루이스 vs. 프로이트>(The Question of GOD, 2002. 같은 제목으로 홍성사에서 출간)에서, 이 책의 목적이 “완전히 대립하는 두 관점,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세계관으로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 프로이트는 이 세상의 인간을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로 분류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니콜라이의 저술은 단순히 프로이트와 루이스 사이의 세계관 대립을 넘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두 부류의 인간에 대한 세계관적 이해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는 미국의 희곡 작가 마크 세인트(Mark St. Germain)가 2009년에 연극 무대에서 시연한 작품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번 무대 위에 올려졌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난점은 대중성에서 드러난다. 두 주인공의 연기는 나무랄 데 없을 만큼 훌륭하다. 다만 과거 회상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장면들은 2인이 무대 위에서 펼치는 연극처럼 평면적인 까닭에 주인공의 설 새 없이 쏟아지는 대사를 이해할 만한 배경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지루해지기 십상이다. 그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경우 이 놀라운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방문한 사람은 불과 11,326명(10월 10일 현재) 불과하다. 미국도 사정은 비슷해서 캐나다까지 합쳐서 입장 수익이 고작 906,283달러, 즉 1백만 달러조차도 넘기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가치는 두 번 볼 때 나타난다. 첫 번째 관람에서 우리는 영화 <새도우랜드>(Shadowlands, 1995)에서 루이스 역을 맡았던 앤서니 홉킨스가 이번에는 그의 상대역으로 등장한 프로이트를 연기할 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볼 때는 서로 다른 세계관의 입장을 분명히 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무신론 관객이든 그리스도인 신자이든 최고의 지성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자신과는 다른 세계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일은 분명 가치가 있다.

빅매치의 승자는 관객이다

두 사람은 무신론과 유신론이라는 서로 다른 대척점에서 있는 세계관으로 무장한 채 20세기 서구 지성계를 대표해 온 인물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만남이란 마치 세계 헤비급 복싱계를 품미했던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대결 같은 ‘빅매치’를 연상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는 관객을 흥분시키지 않는다. 두 사람은 유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서로 다른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으로 신의 존재와 성, 죽음과 고통 등의 주제들을 넘나들며 자연스럽게 차분한 대화를 이어나간다.

영화만을 놓고 보자면 프로이트나 루이스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이와 전공, 세계관의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만났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었으며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드러냈다. 그러나 두 지성인의 이야기로 가득한 영화를 끝까지 보는 관객이 있다면 그 또한 대단한 사람이다. 루이스와 프로이트를 지켜보며 자신의 눈이 어디로 향할지를 알았으니 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에서 문화선교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이다. 극동방송의 해설이 있는 영화극장을 통해 기독교 영화 전파에 힘을 쏟으며 대중강연과 미디어를 통한 문화선교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죽음과 종교>, <감성세대의 영화 읽기> 등이 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진단 : 예술 분야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

예술에 대해 교회의 시각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미국의 한 개신교 목사가 초창기 영화에 대해 말하길, 그것은 ‘놀라운 발명’이고 특히 ‘교육적 목적을 위해 가치 있는 예술작품’일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얼마 후 상업적인 영화가 잇따라 나오자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변혁하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세상적 기구와 협력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영화롭게 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였다. 로마로프스키(W. Romanowski)는 이런 고립주의적 사고가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의 구속적인 면을 찾아내어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아쉬워했다.

아브라함 카이퍼, 한스 로크마커, 니글 리, 존 월포드, 캘빈 시어벨트,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존 윌슨, 윌리엄 더니스 등 개혁주의자들의 의견은 ‘예술에 대한 거리두기’보다 ‘참여를 통한 변혁’에 있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종교개혁 후의 네덜란드 사회가 얼마나 예술 창출에 적극적이었는지 상기시켰고, 반 틸은 모든 인간은 문화적 요구를 완수할 신성한 사명을 지닌다고 했으며, 한스 로크마커는 그리스도인의 ‘적극적 개입’을, 윌터스토프는 ‘행동하는 예술’을 각각 역설하였다.

국내 예술계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눈에 두드러지는 않지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먼저 개혁주의 미학을 학술적으로 검토한 신국원 교수는 기독교 예술이 나갈 바를 ‘문화 돌봄’과 ‘생명 돌봄’으로 보면서, 소망의 기초를 사회적 공동선에 둘 것을 제안했다. 한편, 최태연 교수는 타락 이후 불안과 파괴에 시달리는 세상 속에서 ‘구속적’ 관점을 담은 예술

에 주목할 것을 역설했으며, 라영환 교수는 17세기 네덜란드 화파에서 20세기에 이르는 개혁주의 회화의 역사를 검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의 소명을 강조하였다. 일찍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예술을 소개한 오익석 교수는 “세속화된 미술이라고 외면해버릴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 개혁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안용준 교수는 아브라함 카이퍼와 캘빈 시어벨트와 한스 로크마커의 개혁주의 미학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부합하는 아름다움의 세계를 찾아나서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것임을 역설한 바 있다.

기독교 세계관 이론가들의 연구는 중세적 사고에 머물고 있는 기독교 예술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신앙을 지닌 작가들이 체계적으로 예술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거나 학습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스도인의 미술을 종종 ‘교회 미술’과 혼동하는 시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좁은 의미의 예술 활동’이란 것을 숙지해야 한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분에게 속한다면 문화예술의 주권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시 24:1) 역사적으로 볼 때 개신교에서 시각 예술가들이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처럼 여겨지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적극적으로 예술에 참여한 결과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을 탄생시켰다. 지금의 풍경화, 정물화, 장르화 등은 모두 그 시대의 산물이란 점이 놀랍

다. 이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였다.



프리츠 아이헨버그, 평화로운 왕국, 목판화(1950)

기독교 세계관이 알려준 유익한 점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삶과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점이다. 우리를 세상의 청지기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으로 피조 세계를 돌보며 선함과 아름다움의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종교적인 것으로 좁혀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삶의 전반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가 마치 하나님은 하찮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는 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

신국원 교수의 지적처럼 중세에서 '신학'이 주축이 되었다면, 근대에는 '과학'이, 오늘날은 '미학'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싫든 좋든 '미학'의 시대에는 읽고 사고하는 것보다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 앞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이 축복이 될지 해가 될지는 우리가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이를 대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방관자로 남을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문화예술은 일과 잠 사이에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치를 부리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 문화환경 속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문화가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비판이든, 참여든, 변혁이든 반응이 요구된다.

이런 시대일수록 현재 문화예술을 관통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왜 생겼으며 무엇이 결여되었는지 명확한 이해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필자는 이런 문화 이해의 기준을 기독교 세계관에서 구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경우 내가 속한 예술계를 어떻게 돌보고 섬길지 고민하게 된다. 21세기의 예술적 의제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기독교적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지배문화의 장점과 단점, 구속의 메시지와 그 능력에 대한 신뢰, '아디아포라'에 대한 보다 친취적인 해석 등이 우리의 문화 사역을 한층 역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 주제들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미술계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전문적으로 확립해가는 예술가들이 있으니 여간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속받은 문화적 활동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낙관적인 것은 많은 시민들도 표류하는 삶을 헤쳐가고 싶은 욕망과 갈등하는 세상에서 평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비전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시그널이다. 그리스도인 작가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바로 목전(目前)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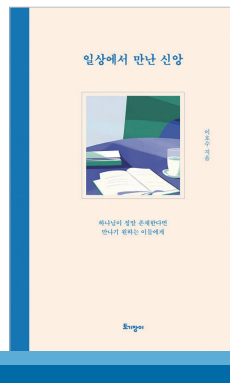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대한민국 1세대 AI 박사가 전하는 일상에서의 신앙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신앙〉 / 이호수 / 토기장이 / 2024

〈일상에서 만난 신앙〉의 저자 이호수 박사는 1980년대 중반 AI(인공지능)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 IBM 왓슨연구소(1985~2005), 삼성전자 부사장(2005~2014), SK 텔리콤 사장(2015~2018)을 거친 AI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1세대 AI 전문가로서 〈넷플릭스 AI 인사이트〉, 〈비즈니스 전략을 위한 AI 인사이트〉, 〈생성형 AI 산업별 활용 트렌드〉 등의 저서를 이미 출간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신앙 수필집, 〈일상에서 만난 신앙〉을 발간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51편의 수필이 실려 있다.

1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 아래 12편의 글이 있다. 그중에 ‘인생의 킥핀’이라는 글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성공적인 삶의 지혜인가를 불링 이야기로 나눈다. 우리가 불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제일 앞에 잘 보이는 1번 핀이 아니라 다른 핀보다 작고 잘 보이지도 않는 5번 핀을 집중에서 잘 맞출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킥핀’이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생각을 전한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인생의 ‘킥핀’이 되셨습니다.
나는 과거에 세상적인 지식과 사람을 킥핀으로 삼

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킥핀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22~23면)

또 ‘믿음의 번지점프’라는 글은 저자가 높이가 43미터나 되는 뉴질랜드의 ‘카아라우’ 번지 점프대 앞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메시지가 담긴 단상이다.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삶의 안전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도전자는 반드시 운영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72면)

2장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라는 주제 아래 11편이 실려 있다. 그중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글은 TV건강상식 코너를 통해서 얻은 통찰이다. 즉, 바

닷물의 소금 함량이 3.5%에 지나지 않음에도 썩지 않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 20% 인구에 달하는 한국 기독교의 무력함을 안타까워한다.(111면).

3장에는 ‘영적 성장의 모습’이라는 주제 아래 10편이 담겨 있다. 저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통’이라는 글에서, 운전할 때 차선이탈 감지장치의 경고음을 통해서 얻은 영적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 영혼에도 차선이탈 감지장치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영적 고통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이며, 빨리 바른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171면).

4장에는 ‘거짓과 죄에 대해 민감해지기’라는 주제로 8편을 모았다. 그중에 ‘죄를 크게 보는 전자현미경’이라는 글이 있다. 저자가 1990년대 초 그리스도인 초년병 시절, 미국에서 한국 교회의 저명한 원로인 방지일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간단히,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온 목사님의 답은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죄를 보는 배율이 높은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 말씀을 줄곧 간직하고 있다.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듯,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거자씨만큼 작은 죄에도 민감합니다. 죄의 위험성과 파괴력을 익히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223면)

마지막으로, 5장에는 ‘AI 시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10편이 담겨 있다. 그리스도인 인공지능 전문가인 저자가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 놀라운 기술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신중하면서도 능동적으로 우

리가 잘 맞이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나침반을 선물하는 대목이다.

“생성형 AI 기술은 모든 산업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융, 법률, 광고, 출판, 교육산업에서는 이미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기술을 전향적이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290-293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하고 성장시켜 왔는지를 엿볼 수 있다. 37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어떻게 광야길 같은 인생의 마라톤 여정 속에서, ‘신앙과 삶’의 자리를 이원화시키지 않고 멋진 경주를 해왔는지 알게 한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 책의 집필 과정이 일상의 소소한 생각과 사건들 및 그것들과 관련된 신앙의 교차점을 발견하는 여정이었다고 고백한다.(294면). 또 이러한 발견은 자신에게 종착역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과 생각이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이었음을 알았다고도 밝힌다. 우리는 독자로서 퍼즐 조각 같은 이 진술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하나, 둘, 셋 읽어나가면서, 광야 같은 경기장에서 경주를 잘 감당한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한 인생의 풍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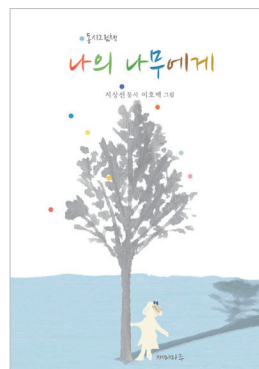
글쓴이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이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줄곧 섬겨왔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체계신학, Ph.D.), 서울대학교교회 목사(2012-2016)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 복클럽 지도목사, 서울대 기대모(기독교대학원생모임) 지도목사, 침신대 겸임교수, 상대원침례교회 협동목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등 뒤의 사랑, 나의 나무 ‘하나님’

지상선 (한국독서코칭연구소 소장)



《나의 나무에게》 / 지상선 글 / 이호백 그림 / 재미마주 / 2024

어린 시절, 학교 창문 사이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일까? 아니면 저 사람들도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겠지?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러한 몽상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아이였다. 그러다 “아, 나는 하늘나라의 천사였을 거야. 아마 그곳에서 무척 개구쟁이였나 봐. 그래서 땅의 세계에 내려와 예쁜 이야기를 만들라고 보내주셨나 봐”라는 상상을 하곤 했다. 이런 상상은 나를 위로해 주었고, 못한 씨앗이 긍정의 열매로 자라 작가까지 되었다.

작가로서의 꿈은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라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이 메시지를 반영한 동시 그림책 《나의 나무에게》(2024)을 펴냄으로써 꿈을 이루게 되었다. 움베르토 사바(Umberto Saba, 1883-1957)는 “시인은 많은 것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른이 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는 아이야”라고 말한다. 이처럼 동시 그림책 《나의 나무에게》는 독자에게 속삭이고자 한다.

“시인도 화가도, 우린 사실 어린이들이야! 이 동시 그림책으로 따로 배울 건 없다고! 너의 마음속에 같은 편이 되어 들어가고 싶을 뿐이야!”(《나의 나무에게》p. 73)

이러한 상상과 더불어,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은 신앙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깨달음들이 나의 작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나는 하나님께 질문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문학으로 오셨나요? 좋은 시인은 좋은 시를 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33:3의 말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지어다”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길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어두운 내면 아이에게 희망을 노래하고자 했다.

이렇게 동시 그림책 《나의 나무에게》를 집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등 뒤의 사랑이 되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동시 그림책 〈나의 나무에게〉는 여는 시, ‘동시 자판기’로 시작하여 5개의 장으로 펼쳐진다. 시의 화자인 호아는 할머니와의 특별한 애착 관계 속에서 느꼈던 넉넉한 품,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몽환적 상상을 통해 현실 세계를 의연하게 마주한다. 이러한 마음의 여정은 1장 ‘아가, 할머니’, 2장 ‘마법, 동화’에서 잘 드러난다. 호아는 엄마의 상실과 새엄마의 등장을 친진한 시선으로, 사뭇 진지하게 냄새와 빛, 공기의 기운 속에서 받아들인다. 어린 마음으로 이해하는 화평은 3장 ‘엄마, 청개구리’, 4장 ‘자연, 향기’에 담겨 있으며, 마지막으로 5장 ‘아빠, 강아지’에서는 디딤돌 같은 부모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강아지 ‘망망이’를 통해서 호아의 감쪽하고 유쾌한 정서를 만날 수 있다.

동시 그림책 〈나의 나무에게〉는 각각 따로 창작된 동시들이 한 편의 동화처럼 엮이는 이유는, 작가의 마음 발에 심어진 희망의 씨앗이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 때문이다. 이 나무의 성장 과정은 동시 ‘특별한 아기 새’로 시작하여 ‘독립선언’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이 동시들은 성장하여 하나의 서사를 이루며 분화되는데, 이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작가의 신앙적 성장과도 연결된다.

아이들은 때때로 “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나는 왜 태어났나요?”라는 질문을 한다. 그들은 하늘에서 “툭” 떨어졌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새의 둥지처럼 “툭” 담아주는 대상을 발견해야만 한다. 어쩌면 그 새의 둥지는 그들 자신일 수도 있다. 작가는 상처와 결핍을 통해 특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독자들이 〈나의 나무에게〉를 통해 자기 존재의 소중함과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마음 깊이 소망한다.

작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건강한 신앙의 삶을 꿈꾼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한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할게요. 주님, 저의 등 뒤의 사랑이 되어 주시고 나의 나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FAITH & LIFE

글쓰기 지상선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안목으로 작품을 쓰고 활동하는 아동문학가이다.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에서 석·박사과정(아동심리 및 문학교육)을 졸업했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우석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객원상담교수이며, 한국독서코칭연구소장(부설: 이고그램그림책연구소)과 한국독서치료학회 수련감독 및 전문가 과정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2019년 〈아동문학평론〉 동시 부문, 2023년 〈아동문학사조〉 평론 부문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지난 20년 이상 그림책 사고력 논술, 교육, 심리, 그리고 질적 연구를 하며 평론과 창작, 독서 코칭과 독서 치료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과 실천 경험을 나누고 있다.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동시 그림책 〈나의 나무에게〉를 2024년 5월에 출간했다. 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정회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윤상덕 (일산교회 담임목사)



신앙성장프로그램 개요

항목	개요 및 일시	장소	강사	산형
전도목회훈련 (1,2,3차) 오리엔	9/5(목) 오전 10:00 매주 목요일(12주)	지하 예배실	11차 박시훈 목사 20차 허만영 목사	9/16(토)까지 박시훈 목사에게 문의 신청 (010-8520-8404)
전도목회훈련 (1,2,3차) 복제반	9/5(목) 오후 8:00 매주 목요일(12주)	6층 전영대인습실	11차 박시훈 목사 20차 함태영 전도사	
구역예배 성장단구도 (매주 1차)	9/12(목) 오후 8:00 매주 목요일(6주)	지하 예배실	오성린 목사 (010-2820-9574)	
신약예배 성장단구도 (매주 2차)	9/10(화) 오전 10:00 매주 목요일(6주)	5층 예배실	윤종문 목사 (010-5505-6746)	9/16(토)까지 1층 사무실에 배치된 신청서 작성
성서지리	9/12(목) 오전 10:00 매주 목요일(6주)	5층 예배실	양동규 교수	
기독교 세계관	9/10(화) 오후 8:00 매주 목요일(6주)	지하 예배실	신국원 교수	

*신약예배훈련과 신약성장프로그램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약성장프로그램은 일산교회 등록교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장소는 신앙단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학까지 대구에서 보내고, 문학비평을 공부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문과로 진학하였다. 문학비평을 공부하면서, 철학과 예술의 흐름이 현대로 오면서 급격하게 반기독교로 흐르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 세미나 중에 “그리스도인은 운명론자들인데, 어떻게 문학의 길을 제시하는 비평을 공부하는가”라는 질문도 받아야 했다. 어쩌면 그때부터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기 위해 내게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은사 운동 중심의 교회에서 부교역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후 제자훈련을 목회 철학으로 하는 대전 새로남교회를 통해서, 훈련 목회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은 단말마적인 구호도, 현학적인 지식에도 머무는 것이 아니기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분명한 ‘길’ 혹은 세

상을 바라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이 필요했다.

2018년 4월 일산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매달 ‘이달의 도서’ 코너를 만들고 성도들과 나누어 왔다. 작년 일산교회 훈련위원회는 ‘북토크쇼’를 열어 성도들과 가까이서 나누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나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나는 거기서 지금까지 리처드 마우(Richard Mouw)의 〈무례한 기독교〉, C. S. 루이스(C. S. Lewis)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발제했다. 다음에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칼빈주의 강연〉을 읽고 나눌 생각이다. 전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해당하는 책도 있고 응용된 책도 있지만, 이 세 권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에게는 ‘길’과 ‘안경’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리고 올해 늦가을에는 신국원 교수님을 모시고 〈니고데모의 안경〉을 공부하려 한다.

일산교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장년부도, 주일학교도 성장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성경의 진리를 삶의 자리로 연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 그 바른 방법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이다. 진화론적 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문제로 복잡한 이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신실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윤상덕



대구대학교를 졸업했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수사학(rhetoric)으로 학위(M.A.)를 받은 후 총신 신대원에서 공부했다. 큐티 매거진 〈새벽나라〉 〈생명의 삶〉 필진으로 사역하였으며, 〈큐티스쿨〉을 출판하였다. 대전 새로남교회 부목사를 거쳐, 2018년부터 일산교회 담임목사, CAL-Net 경기지역 총무, 오픈도어선교회 이사로 섬기고 있다.

일산교회 기독교 세계관 교육 수료자 소감문

뜻밖의 선물

나는 작년 임직을 한 일산교회의 새내기 권사이다.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 신앙 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었는데, 나는 그중에 <기독교 세계관>을 선택하여 듣게 되었다. <기독교 세계관>을 수강한 이유는 그동안 나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느끼며 살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지구환경 문제’ 등이 너무도 중요해지는 요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내 모습을 조금 더 잘 알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첫 수업부터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다. 얼굴 한가득 웃음을 담으시고, 높지도 낮지도 않은 부드럽고 온화하신 목소리로, 담담하고도 강직하게 말씀을 전달하시는 신국원 교수님을 만나면서, 전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특히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더욱 신앙인의 기쁨과 은혜가 얼굴과 삶으로 나타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한 학기 수업만으로는 생각을 정리하기에 부족한 듯하여, 2학기에 재수강까지 하게 되었는데, 다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성경은 안경이다.”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성경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성경은 창문과 같아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나에게 “성경은 안경이다”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시각의 성경 바라보기였다.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실천되지 않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되었다.

“선물은 소명입니다”(고전 10:31)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누리고 사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명의 삶을 살라고 힘주어 하신 말씀은 평생 잊지 않을 것 같다. 은혜받기만을 소원하며 기도했던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소명의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며 변하고 다듬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주저하는 영역들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직 강의가 진행 중이어서 더 받을 은혜가 많겠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도록 힘쓰겠다. 또한 주신 달란트(선물)를 계속 발견하고 개발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겠다.

 글쓴이 장희정

일산교회 시무권사



제1회 기독교 중고등학생 독서대회 (대상)

세계관, 회복을 위한 첫걸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것들*



세계관이란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를 뜻한다.** 쉽게 말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손봉호 교수님의 책, <쉽게 풀어쓴 세계관 특강>(CUP, 2023)은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에 대한 시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만사가 나에게 가지는 의미, 가치, 느낌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종교 혹은 종교적 성격이 있는 지식이나 이념이다. 이 책은 다른 종교들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점, 철학과 과학의 발달 속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 등에 대해 다룬다. 이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태초, 처음과 끝

이전에는 ‘태초’라는 단어가 와 닿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뒤에는 ‘태초’라는 단어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크게 달라졌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선(線)적 역사관이고, 다른 종교들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없이 돌고 도는 순환적 역사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태초’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태초’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순환적 세계관에서는 계속 같은 곳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발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선적 세계관에서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태초’는 선(線)적 역사관이라는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발전, 즉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순됨이 말하는 진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의 하나는 삼위일체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논리를 초월한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우리가 보기에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터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불합리한 고로 믿노라!” 만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전부 완벽하게 사람의 논리에 들어맞는다면 사람이 만들어 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모순되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 즉 성경의 이야기가 사람의 상식이나 논리

* 이 글은 2024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좋은교사운동,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기독교 중고등학생 독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김하준 학생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본 독서대회는 지난 7월~9월까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기독교 중학생, 기독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추천 도서는 <쉽게 풀어쓴 세계관 특강>(손봉호), <니고데모의 안경>(신국원), <기독교세계관이 필요해>(정석원),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크리스 파커),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류현호, 강애리) 이상 6권 중 한 권을 선택하여 독후감을 쓰는 공모전이었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모순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생 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높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뜻한다. 현재의 과학은 세상의 시작, 근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빅뱅 우주론이다. 그러나 빅뱅 우주론 또한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다른 가설, 이론들로 대체될 수 있다. 토마스 쿤은 이런 것을 두고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 혁명’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과학은 영구불변하지 않고 언제든지 더 타당한 이론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과 온 세상과 우주가 우리의 지식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세상은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을 깨달았다.

고통

이 책에 따르면, 고통의 원인은 크게 자연에 의한 고통과 사람에 의한 고통으로 나눌 수 있다. 예전에는 자연에 의한 고통이 더 심각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고통은 매우 줄었지만, 오히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고통은 늘어났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2,700만 명이 희생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예전에 비해 인간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도 더 커졌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약자라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말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의이다.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약자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랑으로 넘쳐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봉호 교수님의 저서를 통해, 기독교의 세계관은 다른 종교들과 달리 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경의 이야기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순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모순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학은 현재의 패러다임뿐이지 절대불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러한 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 주변의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하준



높은뜻씨앗학교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높은뜻씨앗이되어교회’를 다니고 있다. 관심분야는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등이고 이러한 전공들을 통해 우주 관련 분야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제1회 기독교 중고등학교 독서대회 (고등학생부 최우수상)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로마서 8:6)

기독교세계관 독서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포스터를 통해 추천된 책들을 알아보던 중, 책 표지에 적힌 ‘일, 테크놀로지, 성, 소비, 진리, 행복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라는 문구에 흥미를 느껴, 크리스 파커(Chris Parker)의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템북, 2022)을 선정하게 되었다. 책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했으며,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동시에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특히 친구에게 이야기를 듣는 듯한 구성이어서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에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 역시 그러했다.

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부 ‘개구리와 물고기’에서는 서서히 끓는 물에 빠진 개구리가 물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과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비유로, 문화의 영향력과 올바른 세계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2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며,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세상의 본질과 역사, 인간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역할 등을 설명한다. 또 3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생각’에서는 일, 테크놀로지, 성, 소비, 진리, 행복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것들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고, 세상 문화의 관점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쉽게 풀어서 해석해 준다. 마지막 4부 ‘은혜로 운행되는 인생’에서는 결국 은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진리를 말하며 기독교 세계관의 당위성과 가치를 전달한다.

특히 1부와 3부를 읽으며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장 인상 깊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초, 중, 고등학교 내내 미션스쿨을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름 붙여진 물건, 활동, 가치들은 상당히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책을 읽는 동안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 세계관들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나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무의식적으로

* 이 글은 2024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좋은 교사운동,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기독교 중고등학교 독서대회’에서 고등학생부 ‘최우수상’을 받은 서한웅 학생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본 독서대회는 지난 7월~9월까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기독교 중학생, 기독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추천 도서는 <쉽게 풀어쓴 세계관 특강>(손봉호), <니고데모의 안경>(신국원), <기독교세계관이 필요해>(정석원),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크리스 파커),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류현모, 강애리) 이상 6권 중 한 권을 선택하여 독후감을 쓰는 공모전이었다.

사용하고 있던 세상의 언어, 세상의 행동방식이 나의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1부에 나온 서서히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말이다. 나를 감싸고 있는 기독교적인 환경들에만 의존하여 세상의 뜨거운 물로부터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갖춘 가정과 학교, 주변 환경은 실제로 나에게 많은 신앙적 이점을 주었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공격들을 간과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공동체의 신앙과 별개로, 한 사람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신앙을 지키시는 분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뿐이시기 때문이다.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나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더욱 값진 의미가 있다.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것은 아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던 공부, SNS, 인간관계, 운동 등의 영역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할 때 표면적으로는 그리 말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은 중요할지라도 지금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이웃을 돕는 것보다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는 것을 더 기뻐하실거야.”라는 마음을 작지만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 잘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점차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말과 행동으로 그 악함이 모습을 드러낼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사소하고 익숙해서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이 죄의 결과였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또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찬양과 기도, 봉사를 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었기에, 철저하게 스스로를 속이고 깊은 내면의 죄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3부에 나타난 우상 숭배, 자기 만족과 안위,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 책을 통해 이러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많은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기에, 회개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번 독서대회는 지식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내면의 진짜 신앙, 행동적인 신앙까지도 돌아보는 총체적인 점검의 시간이었다.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을 읽으며 기독교 세계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상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온전한 영의 시각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바르고 온전히 누리며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지식에만 머물렀던 신앙을 삶으로 가져오는 일, 교회에서의 신앙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일, 무엇보다 내면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관을 점검하는 일에 힘써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나의 시각으로 만들고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FAITH & LIFE**

 글쓴이 서한웅

새음교회 부속 새음학교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다. 진로는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고, 새음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제1회 기독교 중고등학생 독서대회 (중학생부 최우수상)

믿음의 여행 지침서를 읽다*



하나님을 더 알기 바라는 마음으로 정석원의 책,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해>(홍성사, 2023)을 읽었다. 나는 책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게 된 것이 많다. 그중 가장 신앙의 전환점이 된 점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 여행을 이어 갈지에 대한 결단을 간증하고자 한다.

나는 모태 신앙인이다.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기도, 찬양, 신앙적인 대화를 하며 지내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길 즐거워하지 않았다. 점점 교회를 외면하게 되었고, 매주 교회로 데려가시는 부모님과 자주 갈등이 생겼다. 그런데 다시 책을 통해 이제 알게 되었다.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받아 교회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였음을. 이 책은 부모님이 비그리스도인일지라도 감사해야 함을 말한다. 그 이유는 나를 통해 믿지 않는 가정에 믿음의 좋은 유산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셨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교회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나는 점점 교회를 멀리했고, 집과 거리가 있는 교회가 멀다며 불평했었다. 더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도 이해되지 않았다. 그만큼 섬기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없었다. 중학교 2학년 진급을 앞두고, 부모님께서 집 앞 교회로 옮겨 친한 친구들과 편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다. 그런데 막상 가까운 교회로 옮길 기회가 생기자 망설여졌다. 그때 서야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중고등부 활동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커져, 교회도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점차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친한 지체가 중고등부 예배를 떠났다. 많이 의지하고 따르던 언니였기에 안타깝고 막막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였다. “나는 교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는가?”

나는 가끔씩 교회를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또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다녔던 것 같았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의지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지만, 교회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혼자가 되더라도 혼

* 이 글은 2024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좋은교사운동,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기독교 중고등학생 독서대회'에서 중학생부 '최우수상'을 받은 장윤서 학생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본 독서대회는 지난 7월~9월까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기독교 중학생, 기독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추천 도서는 <쉽게 풀어쓴 세계관 특강>(손봉호), <니고데모의 안경>(신국원), <기독교세계관이 필요해>(정석원),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크리스 파커),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류현모, 강애리) 이상 6권 중 한 권을 선택하여 독후감을 쓰는 공모전이었다.

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신앙생활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1대 1의 관계임을 깨달았기에, 예배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기회가 삼아야겠다.

세상에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는 세상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영상, 웹툰, 딥페이크 등으로 청소년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학생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책은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성경을 찾으라고 한다. 말씀대로 행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성경만이 믿음 여행의 나침반이기에 이제부터 성경을 삶의 궤도로 세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정하여 결눈질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길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직면한 문제들 앞에서 불안해하기보다,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싶다.

돌아보면, 나는 늘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가진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며 살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모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주어진 것들을 마땅히 나의 소유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모두 주님의 소유임을! 그러므로 나 자신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곳에 쓰이기를 소망한다.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해>를 통해서 신앙 여행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 대한 감사함도 깨달았다. 유혹이나 어려움 속에도 단 하나의 올바른 길, 성경의 길을 걸을 용기도 생겼다. 나의 참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릴 수도 있게 되었다.

이 책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모르나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다. 이를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다리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불을 밝히는 하나의 작은 빛이 되어서 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장윤서



인천 사리울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이다. 인천제일감리교회를 다니고 있고, 관심있는 분야는 심리학이다.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음주의 기독교 종말론 논쟁 & 이해

지난 2024년 8월 16일(금) 저녁부터 17일(토) 오후까지 ‘제7회 기독교대학원생 북 콘서트’가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음주의 기독교 종말론 논쟁 & 이해’라는 주제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서울대기독교수회, 삼광교회의 후원으로 서울대학교(11동)에서 개최되었다. 참여자는 현장 등록자 약 47명과 온라인(Zoom) 참여자 약 15명이었다. 포스터에 실린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였지만, 구체적 내용은 복음주의 기독교 종말론의 다양한 유형을 함께 정리하고 논점들을 비교하면서 토론할 기회를 얻자는 것이었다. 오프닝 사회에서 석종준 목사(서울대 선교사)는 행사가 자칫 공부하는 관성의 경직된 모임이 될 것을 경계하면서, “여기는 학술대회가 아니고, 만남과 교제가 일차적 목적이 되는 자리입니다.”라고 주지시켰다.

이번 ‘제7회 기독교대학원생 북 콘서트’에서 나눈 책은 <천년왕국 논쟁>(새물결플러스, 2024), 그리고 톰 라이트(Nicholas Thomas Wright)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IVP, 2012)였다. 그리고 주제 관련 전문가 초청특강은 이필찬 박사(요한계시록연구소 소장)가 강사로 섬겨주었다. 감사한 것은 이번 콘서트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 통로를 통한 도움이 있었다. 장거리 참여자를 위한 남자 숙소는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에서 ‘서울대 기독교인 회관’을, 여자 숙소는 서울 삼광교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후원해 주었다. 그리고 김은정 박사(서울대 불어교육과), 윤현준 교수(숭실대 기계공학부), 탁장한 박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셋별 박사(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선배들, 에프랑감사교회, 뉴크리에션교회, 상대원침례교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통한 식사와 간식, 이동식 앰프와 무선 마이크 등 다양하고 세세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짐으로써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



첫째 날(8/16, 금, 저녁 7:30~11:00)은 김셋별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의 사회로 <천년왕국 논쟁>(총 8장)를 가지고 함께 정리·비평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60분 발제(각 15분씩, 4명)와 30분 비평(각 7분씩, 4명), 그리고 80분 자유토론으로 구성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장 ‘역사적 전천년설’(Historical Premillennialism)의 발제(정문선, 성균관대 교육철학 박사)와 비평(채민석, 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2장 ‘세대주의 전천년설’(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의 발제(남명현, 서울대 종교학과/철학과 졸업생)와 비평(장성일,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 석사과정), 3장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의 발제(고성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와 비평(이동욱, 카이스트 로봇학제공학 박사과정), 4장 ‘무천년설’(Amillennialism)의 발제(김은진, 서울대 디자인학부 박사과정)와 비평(카이스트 정보과학대학원 석사과정). 각 발제와 비평 후에는 뜨거워진 자유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둘째 날(8/17, 토, 오전 9:30~오후 12:40)은 탁장한 박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강사)의 사회로 첫째 시간은 톰 라이트의 책, <마침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발제와 자유토론, 두 번째 시간은 초청특강과 질의 문답이었다. 우선, 첫째 시간의 진행은 <마침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1부 ‘배경 설정’의 발제(고성종,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2부 ‘하나님의 미래 계획’의 발제(조예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3부 ‘부활과 교회의 사명’의 발제(김다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와 자유토론의 순이었다. 둘째 시간은 저명한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리차드 보컴(Richard J. Bauckham)의 제자로서 국내 최고의 종말론 영역 학자 중의 한 분인, 초청 강사 이필찬 박사(요한계시록연구소 소장)의 특강과 학생들의 질의 문답으로 채워졌다.

이번 ‘제7회 기독교대학원생 북 콘서트’의 나눔 주제는 특별히 서울대, 카이스트 등에서 지난 학기 중에 청년 학생들을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도하려는 여러 이단들의 도전과 미혹의 사례 때문에 시작된 모임이었다. 참가한 다수의 청년들이 이번 북 콘서트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캠퍼스의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북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요셉과 다니엘, 다윗처럼 자라가길 기도한다. 방학마다 개최하는 이 콘서트의 꿈은, 어둠의 권세가 만연한 이 시대에 새벽이슬 같은 수많은 각 캠퍼스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영성과 지성, 신앙과 학문의 일원화된 균형감을 가지고 계속 잘 자라가고, 마침내 이 청년들이 서로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마중물이자 플랫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FAITH & LIFE**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동역회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동역할 수 있음에 큰 기쁨이고,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믿음과 열정으로 이어오신 동역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희망하고, 저도 조그만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철웅 (한남대 법학과 교수, 정회원)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학문적 탐구와 지성적 성찰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헌신해 오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동역회의 사역이 더욱 발전하여 많은 이들에게 진리와 희망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 김광태 (삼성글로벌리서치 인재경영연구실 연구원, 정회원)

40주년을 맞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신앙인의 생각을 바로잡아 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학문적 삶을 일구어 가시는 회원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통해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동역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섭리를 믿습니다. 새로 맺을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 김선옥 (숭실대 철학과 교수, 정회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 40년간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 감당하신 동역회의 앞으로 40년도 기도로 응원합니다. - 김영호 (MakinaRocks Principal Data Scientist, Part Lead, 정회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리, 의미, 기준, 가치 등을 저버리는 포스트모던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전 분야의 한국교회 지식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여 삶과 학문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큰 나침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김종걸 (침신대 종교철학 교수 /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장)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열된 시대, 온갖 이단들과 이념들이 진리 노릇을 하는 이 시대에 동역회 회원들께서 부지런히 경종을 울려주신 덕분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이 우리에게 선

물처럼 주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는 동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김홍빈 (서울대 물리교육과 박사후연구원, 정회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창립 40주년을 함께 축하합니다. 그동안 동역회를 이끌어 오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역회가 앞으로도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독교 지성의 소명을 충실하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 문석윤 (경희대 철학과 교수, 정회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시야로 이 시대의 담론을 품되 화살과 같이 정교한 분석으로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귀한 사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지혜의 근원되시는 주님이 더욱 큰 은혜로 동역회를 이끄시길 기도하겠습니다. - 문주은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 박사과정)

한국교회는 이 땅의 굴곡진 근현대사를 함께 통과하며 신앙적 정체성을 형성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선교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질적·양적 성장을 했지만, 동시에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 변질도 노출했습니다. 이런 독특하고 난해한 환경에서, 지난 40년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존재와 활동은 그 자체로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숭고한 은혜였습니다. 부디,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40년은 성경과 교회, 진리와 역사, 지성과 민족을 더 탁월하게 통합하고 견인하는 ‘카이로스’의 연속이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 배덕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 백향나무교회 담임목사)

“네, 동역회입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간사로서 씩씩한 목소리로 전화하던 추억이 벌써 35년 전이었군요. 혼란한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희망의 꽃대를 꽃은 동역회! 40여 년 맺어온 그간의 결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 신호기 (나들목하늘교회 담임목사, 정회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주년을 축하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 학문, 삶에 대한 숙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독교대학원생들을 비롯한 신앙과 학문 후속세대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풀밭으로 가꾸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경건(싱가포르 난양공대 과학교육과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점차 쌓여가는 반성경적 세계관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많은 성도를 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더욱 지혜와 분별의 영을 부어 주사, 혼미스러운 세상 속에 영과 진리에 바로 서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동욱(카이스트 로봇공학학제 박사과정)

신앙과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확인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맡겨짐이 되어주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40주년을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더욱 발전된 믿음의 학술 단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선경(명지대 통합치료대학원 생활체육교육학과 교수, 정회원)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동역회가 있어서 각 학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연구들이 지속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육> 영역은 오늘도 '고통의 신음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육이 더욱 가득해질 수 있도록, '기독교학교교육 연구 공동체'가 더 넓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계속 그 일을 함께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종철(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부소장, 정회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제자도를 외치며 쉽 없이 달려오신 선후배 동역자님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사랑도 공의도 쉽사리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 학술 사역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등불처럼 예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정연(법무법인 '시넷'에 심은 나무' 대표변호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앙과 삶>은 기독교 학교의 교사인 저에게 배움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단비입니다. 빗방울이 모여서 샘물을

이루고, 산과 들을 품는 강물이 되듯이 동역회도 그렇게 흘러왔네요. 앞으로도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하고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바다와 같은 호수가 되어주세요. 지치고 힘들 때면 찾아가 쉬어가겠습니다. -유승민(샘물중고등학교 배움과영성연구소 연구실장, 정회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들이 동역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광야 40년이 지났습니다. 세속적 세계관을 거슬러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고 보급하는데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해들로 축복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윤숙자(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회원)

신앙이 훌륭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새로운 '선과 악'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포용하며,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연약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삶에 희망의 구원에 대해서 탄력성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학술 활동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용순(전주예수병원 의사, 정회원)

40년 전 그때부터 오늘까지 기독교 세계관이란 예수의 제자답게 생각하고 살아감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가는 오늘날, 제자의 세계관으로 각 분야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동역회로 계속 발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윤완철(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정회원)

교회 활동에 대한 열심과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한 물질적 복을 받는데 머물러 있던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변혁하며 살 수 있는지, 지성을 포함한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빛을 비추어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활동에 한국교회는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정병오(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동역회 40년, 주요 연혁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1984년 무렵 학문과 교육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기독교대학을 건립하고자 시작한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DEW)와 1984년 8월 당시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반 학문 연구를 추구하던 대학원생들의 집담회가 공식적으로 발족한 기독교학문연구소(KCSI)가 2009년 5월 통합하여 발족되었다.

통합이전

기독교학문연구소 약사

- 1984. 08 제1회 집담회에서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 결성
- 1985. 12 계간지 <새로운 지성> 제1권 제1호 발간
- 1990. 02 기학연 YB와 OB 통합 및 정관 제정
- 1996. 05 학술지 <신앙과 학문> 제1호 창간 (편집위원장 : 윤완철)
- 1997. 08 기학연 홈페이지 및 웹 BBS 개설
- 2000. 03 기독교학문연구소로 개칭.
- 2002. 01 회원 소식지 <새로운 지성>을 <온전한 지성>으로 명칭 변경
- 2005. 03 <신앙과 학문>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편집위원장 : 유재봉)
- 2009. 03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개원 (원장 : 조정민)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약사

- 1984.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설립 (대표 양승훈), 동역자 모집
- 1985. 월보 <기독교대학> 제1호 발간, 동역회의(1~3차)
- 1988. <통합연구> 제1호 발간. 출판사역 개시
- 1989. 사무실 개설, 출판사(CUP) 등록
- 1990. 통합연구학회(회장 원동연) 발족, 학술발표회 개최(포항 구룡포).
- 1993. 07 사단법인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법인 인가
- 1997. 09 영문 이름 개칭 : DEW (Disciples with Evangelical Worldview)
- 1997. 12 양승훈 교수를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원장으로 파송
- 1998. 11 VIEW : ACTS와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과정(MACS) 체결
- 1999. 08 VIEW 개강
- 2000. 10 창립 20주년 기념 및 한국기독교세계관대학원(KIEW) 설립추진대회
- 2005. 03 명지대 세계관 강좌 개설 - "청년의 꿈과 삶"(16주)

통합이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약사

- 2009. 05 양 단체가 각각 총회에서 통합 결의(춘계학술대회)
- 2009. 10 통합 이사회 (양 단체 이사 및 통합위원 합동회의)
- 2009. 11 제1회 통합 총회 개최(정관 및 이사회 확정), 이사장 : 손봉호 명예교수
- 2009. 12 <신앙과 학문> 학술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
- 2010. 06 2010 춘계학술대회(경북대)
- 2010. 07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사단법인 명칭 변경 인가
- 2010. 11 기독교 추모예식 공청회 및 제27회 기독교학문학회(명지대)
- 2011. 03 <추모예식 연구서> (CUP, 2011), <추모예식 가이드북> (CUP, 2011) 발간
- 2011. 05 2011 춘계학술대회(한남대)

2011. 11	제28회 기독교학문학회(총신대)
2012. 01	소식지 명칭을 월간 <월드뷰>로 변경하고 잡지 등록
2012. 04	중국 절강대와 M.O.U 체결
2012. 05	2012 춘계학술대회(장신대)
2012. 07	기독교세계관연구소(소장 : 조성표)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발간
2012. 11	법무법인(유)로고스와 M.O.U & 제29회 기독교학문학회(명지대)
2013. 01	<월드뷰>를 '㈜세상바로보기'로 분립 운영
2013. 03	학술지 <신앙과학문> 18권 1호 발행
2013. 05.11	춘계학술대회(경북대), 주제 : 기독교, 대학 그리고 학문
2013. 11.16	제30회 기독교학문학회(성균관대), 주제 : 기독교세계관과 학문 - 기초와 실천
2014. 03	학술지 <신앙과학문> 19권 1호 발행
2014. 05.24	2014 춘계학술대회(고신대), 주제 : 소통, 화해, 공존
2014. 11.08	제31회 기독교학문학회(총신대) 주제 : 학자의 삶 속의 선교적 만남
2015. 03	학술지 <신앙과학문> 20권 1호 발행
2015. 05.07	2015 춘계학술대회(평택대), 주제 : 다원주의 사회와 기독교 학문
2015. 11.07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성균관대) 주제 : 융 · 복합시대의 기독교 학문
2016. 01.25	라브리 공동주최 제1회 기독교세계관학교,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 바로보기>
2016. 03	학술지 <신앙과학문> 21권 1호 발행
2016. 05	2016 춘계학술대회(전주대) 주제 : 기독교 학문은 교회와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2016. 11	제33회 기독교학문학회(성균관대), 주제 : 종교개혁의 유산과 과제
2017. 01.05	라브리 공동주최 제2회 기독교세계관학교,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 바로알기>
2017. 03	학술지 <신앙과학문> 22권 1호 발행
2017. 05. 13	2017 춘계학술대회(안양대), 주제 : 종교개혁적 전통의 교육 및 실천
2017. 11. 04	제34회 기독교학문학회(성균관대)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학문
2018. 05. 26	2018 춘계학술대회(백석대),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의 대응
2018. 11. 03	제35회 기독교학문학회(성균관대), 주제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학문의 과제와 방향
2019. 03	학술지 <신앙과학문> 24권 1호 발행
2019. 05. 11	춘계학술대회(한남대), 주제 : 3.1운동 100주년과 기독교
2019. 07	회원 소식지(기관지) <신앙과삶>(7,8월호, 창간호) 발행
2019. 10. 26	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성균관대), 주제 : 생태, 환경 그리고 교육
2020. 01. 10	라브리와 공동주최 제3회 기독교세계관학교,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바로살기>
2020. 03	학술지 <신앙과학문> 25권 1호 발행
2020. 10. 31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목포대), 주제: 생태, 환경 그리고 건강
2021. 04	학술지 <신앙과학문> 26권 1호 발행
2021. 05. 22	2021 춘계학술대회(서울대) 주제 : 뉴노멀, 기독교 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
2021. 10. 30	제38회 기독교학문학회(서울대), 주제 : 메타버스 시대의 의사소통과 기독교
2022.04	학술지 <신앙과학문> 27권 1호 발행
2022.10.29	제39회 기독교학문학회(백석대), 주제 : 양극화에 갇힌 공동체성과 기독교
2023.04	학술지 <신앙과학문> 28권 1호 발행
2023.06.10	2023 춘계학술대회(배재대), 주제 : 기독교인, ChatGPT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23.11.18	제40회 기독교학문학회(서울대) 주제 : 공공선, 공동선과 기독교인의 나아갈 길
2024.05.18	2024 춘계학술대회(부산외대) 주제 : 기독교세계관 연구 40년과 위기의 시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주년 기념행사

주제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년,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일시 : 2024년 10월 25일(금) 13:30~19:40

장소 : 삼일교회 B관 1층 소예배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주년 기념 제1회 기독교 중고등학생 독서대회

기 간 : 2024년 7월 22일 ~ 9월 30일

참가자 : 중·고등학생 107명 독후감 제출

시상식 : 2024년 10월 25일(금) 오후 6시, 삼일교회 B관 소예배실

수상자 : 대상 - 김하준(높은뜻씨앗학교 고등학교)

중등부 최우수상 - 장윤서(인천사리울중학교) / 중등부 우수상 - 구율(글로벌선진학교), 정하람(수정비전학교)

중등부 장려상 - 제가은(글로벌선진학교), 장동현(글로벌선진학교), 김샤론(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이지유(다산새봄중학교)

고등부 최우수상 - 서한웅(새움학교) / 고등부 우수상 - 김찬희(드리미학교), 이드림(드리미학교)

고등부 장려상 - 박지민(드리미학교), 최인수(높은뜻씨앗학교), 박시원(원천하나기독교학교), 김동휘(높은뜻씨앗학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신입 감사 등 서울시 교육청 승인

임춘택 (신임 감사, 제주대 교수, 2024. 09. 30 ~ 2026. 09. 29.)

박신현 (신임 감사, 고신대 교수, 2024. 10. 14 ~ 2026. 10. 13.)

동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29권 3호(9월 30일 발간)

<신앙과 학문> 29권 3호는 14편의 투고 논문 중 11편 게재 확정.

29권 4호(12월 30일 발간 예정)의 논문 접수 마감은 10월 31일(목)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동열(서울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임춘택(제주대 교수), 박신현(고신대 교수)

실행위원회(임기 : 2023.01.30.~2025.01.29.)

실행위원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실 행 위 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사람과삶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태항(명지대 교수), 문준호(휴비츠 프로),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안송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송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용준(한동대 교수), 박해일(경희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김태항(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윤현준(송실대 교수), 부총무 박지희(침신대 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박해일(경희대 교수, 뇌과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이화여대 교수, 국제어문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신응철(송실대 교수, 서양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대표)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 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CTC(유경상 대표)

- **어린이 교육** : CTC 온오프라인 기독교세계관 학교인 '하이세 아카데미' 6학기 '하나님, 청지기가 뭐예요'와 어린이/청소년 월패 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진행 중이다.
- **지도자 교육**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공부하는 '제5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과 어린이세계관 교육을 준비하는 '제4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이 진행 중이다.
- **부모 교육**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서 '기독교세계관으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기'가 진행 중이다.
- **대학생 교육** : 1) 아신대학교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이야기', 2) 평택대 학부 : '기독교세계관과 현대과학' & '기독교 고전 읽기' & 기독교세계관 MTS(신학 석사) : '기독교세계관'
- **교회와 함께하는 기독교세계관 교육** : 부산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에서 4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꿈이 뭐예요', 삼일교회(담임 송태근)에서 5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공부가 뭐예요', 성광교회(담임 남세주)에서 6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청지기가 뭐예요'가 진행 중이다.
- **평택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기독교세계관 MTS 과정 신입생 모집** : CTC의 지도자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학 석사 프로그램이다.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정립하고 분별하며, 모든 현장에서 적용하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한다.

※ CTC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참여 신청은 CTC 사무국(010-3673-8439) 또는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신간 소개



《**단단한 결혼**》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376면 | CUP

결혼 생활을 단단한 요소로 만들어줄 슬기로운 이야기

인생의 폭풍을 잘 이겨낸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대비하는 지혜를 제공한다. 실제 사례와 그 상황에서의 내면의 생각들까지 소담히 담겨 있어 성경적, 심리적, 상담적 구체적인 지혜와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서번트 리더**》 켄 블랜차드, 필 하지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180면 | CUP

최고의 리더는 서번트 리더다! 시대를 초월하는 예수 리더십의 원리

서번트 리더십의 의미, 서번트 리더의 동기와 성품, 리더십의 관점과 방법, 리더십의 행함과 적용, 비전에 헌신하는 매일의 실천 등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서번트 리더의 원리를 제공한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고 (2024년 7월, 8월, 9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4년 7월	2024년 8월	2024년 9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4년 7월	2024년 8월	2024년 9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700,000	940,000	2,700,000	인건비	일반급여	5,455,000	5,455,000	5,455,000
	임원회비	740,000	720,000	1,45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1,300,000
	일반회비	3,720,000	4,717,500	3,980,000		소계	5,855,000	5,855,000	6,755,000
	기관후원금	3,000,000	2,900,000	2,9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0		사무실관리비	466,852	495,356	523,164
	사무실후원금	0	0	0		통신비	135,310	420,893	135,143
	CTC후원금	60,000	50,000	60,000		우편료	6,790	5,380	9,400
	VIEW후원금	1,040,000	980,000	1,000,000		소모품비	42,720	0	15,000
	기타후원금	10,000,000	0	0		식비	247,180	209,280	209,080
	월보구독료	320,000	375,000	320,000		퇴직연금	439,230	439,230	439,230
	학술지원금	0	0	0		4대보험료	935,640	1,092,640	961,81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0		교육비	0	0	0
	기타	30,000	0	0		회의비	0	0	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0
						서무비	55,000	55,000	55,000
						기타(지급수수료)	133,944	136,451	358,102
	소계	19,610,000	10,682,500	12,410,000		소계	3,367,666	3,759,230	3,610,929
기타수입	일반이자	0	0	1,477	연구 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0		VIEW후원금	1,020,100	970,705	940,595
	법인세환급금	0	0	0		소계	1,079,825	1,030,430	1,000,320
	기타수입	0	0	0	출판 (회지)	인쇄비	0	2,673,660	0
	기금차입	0	0	0		발송비	0	613,700	0
	결산이자	0	0	0		홈페이지/홍보비	70,000	0	70,000
	예수금	539,560	500,380	500,380		소계	70,000	3,287,360	70,000
					기타	세금	46,620	109,120	46,620
						잡비	300	300	300
	소계	539,560	500,380	501,857		소계	46,920	109,420	46,92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0		세계관행사준비	500,000	0	0
						세계관기타	0	100,000	51,000
	소계	0	0	0		소계	500,000	100,000	51,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210,000	170,000	21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0
	학회행사수입	0	50,000	190,000		학회장소사용료	0	0	0
	자료집판매	0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0
	학회지판매	0	0	0		학회홍보및기타	0	4,500	141,960
	학술지심사비	0	0	0		학술지인쇄비	2,974,800	0	0
	학술지게재료	0	0	5,170,000		학술지발송비	763,970	0	0
	저작권료	0	0	0		학술지심사료	0	0	0
	학회기타수입	0	0	300,000		학회조교비	0	0	0
	소계	210,000	220,000	5,870,000		소계	3,738,770	4,500	141,960
전월 미수금	전월CMS입금	985,450	940,560	1,107,84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CMS미수금	940,560	1,107,840	1,153,800
	전월이니시스입금	10,000	50,000	60,000		이달이니시스미수금	50,000	60,000	
	소계	995,450	990,560	1,167,840		소계	990,560	1,167,840	1,153,800
당월 수입액		21,355,010	12,393,440	19,949,697	당월 지출액		15,648,741	15,313,780	12,829,929
전월 이월액		16,774,544	22,480,813	19,560,473	차월 이월액 (잔액)		22,480,813	19,560,473	26,680,241

* CMS,이니시스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2024년 7월)

계 16,740,000원

계 3,050,000원

(2024년 8월)

계 7,902,500원

계 2,950,000원

(2024년 9월)

계 9,810,000원

계 2,750,000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체 12,560,000원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셋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심리학, 오히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물리치료학, 연세대 Ph.D, 실행위원장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휴비츠 프로,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이사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데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체계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셋별



김지원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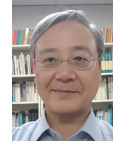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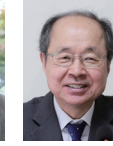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후원방법	☐ 매월 CMS 자동이체		☐ 매월 직접 입금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출입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유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주년기념 행사

40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0년,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I. 양화진 문화원 세미나

2024. 9. 19. (목) 20:00
양화진 문화원 100주년기념교회

강사 **강진구** 고신대학교 교수
다문화와 더불어 사는 지혜

II. 기념예배 및 세미나, 축하 행사

2024. **10. 25.** (금)
삼일교회 B관 1층 소예배실

1부: **40주년기념 감사예배** 13:30-14:00
설교 **송태근** 삼일교회 목사

2부: **기독교세계관 세미나** 14:30-16:30

▶ 동역회 걸어온 길 :

강의 1 **양승훈** 에스와티니 의과대학 총장
강의 2 **양성만** 우석대학교 교수
강의 3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동역회 나아갈 길 :

강의 4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강의 5 **이민경** 고신대학교 교수

▶ 패널토의 : **김정일** 예수비전교회 목사 **서나영** 미 스펠전칼리지 교수

3부: **40주년기념 만찬, 축하행사** 17:00-19:40

III. 동역회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제41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2024. **10. 26.** (토) 13:00-18:00
송실대학교 뱅처중소기업센터 309호
사회 **윤헌준** 송실대 교수

▶ 환영사 **장범식** 송실대 총장

**미래를 여는 기독교세계관:
첨단기술경쟁 시대의 도전과 비전**

[주제강연]

▶ 강의 1 **권오병**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 강의 2 **정상국** 명지대 기계공학과 교수
▶ 토 론 **손화철** 한동대 글로벌리더십학부 교수
권정태 호서대 기계공학과 교수

각 학문분야별(경제·경영, 인문, 교육, 기술·과학,
세계관, 공연·예술, 학제간 연구) **일반세션 진행**

▶ 후원 **송실대학교**